묵화나누美

예술타리

〈묵화나누美 '예술타리'〉는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라는 뜻으로 예술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자들의 예술활동을 지켜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한 통이 아름다운 문화 세상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얘기[藝術寄附]해요! 휴대전화로만 참여 가능합니다.~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March / April 03 / 04 2016 VOL. 53

03/04

March / April
2016 VOL. 53

하늘다리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안산문화재단
ART-CULTURAL ENERGY

하늘다리

March / April 2016
VOL. 53

CONTENTS

Special

08 ASAC 초대석 |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의 배우 주인영

ASAC Stage

1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 2016 ASAC 아침음악살롱 〈현의 여행〉
22 경숙이, 경숙아버지
26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2016 프로그램

Culture 心터

56 新 문화로드
60 문화多樂
62 ASCF 히치하이커
66 이야기가 있는 문화

Culture Trend

32 테마가 있는 미술
37 테마가 있는 공연
42 테마가 있는 음악
48 칼럼

News

72 안산의 젊은 예술인
76 단원미술관 기획전시
80 문화예술 전시정보

발행일 2016 3·4월호(통권 제53호)·비매품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
발행인 제종길 **기획** 김선광(기획홍보부) **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31-481-4046 **팩스** 031- 481- 4021 **홈페이지** www.ansanart.com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ASAC Essay

민들레나 바이올렛이 피고 진달래, 개나리가 피고 복숭아꽃, 살구꽃 그리고 라일락, 사향장미가 연달아 피는 봄. 이러한 봄을 사십 번이나 누린다는 것은 적은 축복이 아니다. 더구나 봄이 사십이 넘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것이다. 녹슨 심장도 피가 용솟음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건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찬란한 쇼윈도는 기쁨을 주니, 나는 비록 청춘을 잃어버렸다 하여도 비잔틴 왕궁에 유배되어 있는 금으로 만든 새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아, 봄이 오고 있다. 순간마다 가까워 오는 봄!

– 피천득 [봄] 中에서

CALENDAR

03 March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대 경기도청 선거담당공무원 교육 10:00 / 해돋이극장	4 대 미성년으로 간다 19:00 / 별무리극장	5 대 미성년으로 간다 19:00 / 별무리극장 대 시흥드림필 정기연주회 19:00 / 달맞이극장
6 대 미성년이 간다 15:00 / 별무리극장	7	8	9 위드프랜드 18:00 / 별무리극장	10 위드프랜드 18:00 / 별무리극장 기 당신을 위한 노래 in 안산(첼리스트 양성원)	11 대 민예총 가요콘서트 19:00 / 별무리극장	12 대 인순이콘서트 15:00 19:00 / 해돋이극장
13	14	15 부부사랑콘서트 19:00 / 달맞이극장	16	17 대 신춘음악회 19:30 / 달맞이극장	18	19 대 번개맨 11:00 14:00 18:30 / 해돋이극장
20 대 번개맨 11:00 14:00 / 해돋이극장	21	22	23	24 대 극단조이아이 어린이 인형극 10:30, 13:00 / 달맞이극장	25 대 극단조이아이 어린이 인형극 10:30, 13:00 / 달맞이극장	26 대 홍혜경플루트 독주회 18:00 / 별무리극장
27	28	29	30	31		

기 기획공연 / 대 대관으로 구분

04 April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5:00 19:30 / 해돋이극장 대 앰비 역량강화 공연 17:00 / 달맞이극장
3 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14:00 18:30 / 해돋이극장	4	5 특별기획공연 19:30 / 해돋이극장	6	7	8 대 연극협회 전국연극제 19:00 / 달맞이극장	9 대 연극협회 전국연극제 15:00 / 달맞이극장
10 풍경 20:00 / 달맞이극장	11	12	13	14	15 대 단원구청 위생교육 14:00 / 달맞이극장	16 기 Remember / 해돋이극장 대 JS클래식 4월의 어느 멋진 날 19:00 / 달맞이극장
17	18	19 대 여성가족과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10:20 11:30 / 해돋이극장	20 대 여성가족과 어린이 성교육 인형극 10:20 11:30 / 해돋이극장	21 공인중개사공연 9:00 / 해돋이극장 기 경숙이, 경숙아버지 20:00 / 달맞이극장	22 기 경숙이, 경숙아버지 20:00/ 달맞이극장	23 기 경숙이, 경숙아버지 15:00 19:00 / 달맞이극장 대 지금도 가슴설렌다 15:00 17:00 / 별무리극장
24 대 지금도 가슴설렌다 16:00 / 별무리극장	25	26 기 아침음악살롱 11:00 / 달맞이극장	27	28 대 한여름밤의 꿈 10:30 13:30 / 해돋이극장 대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극제 14:00 / 달맞이극장	29 대 한여름밤의 꿈 10:30 13:30 / 해돋이극장 대 정신건강증진센터 대시민 강좌 14:00 / 달맞이극장 기 앰비 공연 19:30 / 별무리극장	30 기 앰비 공연 17:00 / 별무리극장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080-481-4000

Special

08 ASAC 초대석 |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의 배우 주인영

바람을 사랑한 그물에 대하여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배우 주 인 영

2006년 초연에 이어
10년이 지난 뒤
변함없이 경숙이로
무대에 선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지는 않다. 동화 '가시고기'나 영화 '국제시장'에서처럼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이 헌신하는 아버지들 말이다. 천성적으로 철들지 않는 바람의 아들인 이 사내는 아버지가 되었어도 바람이 불면 주저 없이 길을 떠난다.

"아부지, 아배요, 어딜 그래 갑니까? 아직도 그래 갈 데가 그리 많이 남았습니까?"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에서 길 떠나는 아버지를 애타게 부르며 붙잡던 딸 경숙이를 보면서 불경스럽게도 문득 세상의 진리를 찾아 왕궁을 떠난 석가모니가 떠올랐다. 수행에 걸림돌이 된다 하여 아들의 이름을 라훌라 곧 '장애물'이라고 이름 지었던 그이다. 물론, 경숙아배와 석가모니는 같은 급의 인물이 아니다. 속세의 인연을 결연히 끊고 고난의 수행 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정처 없이 세상을 떠도는 '그물로 잡을 수 없는 바람' 같은 사람. 방랑의 기쁨만이 그를 움직이는 힘이므로 안주는 그의 무덤일 수밖에 없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를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에 바람을 가둬둘 그물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물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 배우 주인영은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에서 주인공 경숙이 역을 맡았다. 바람을 사랑한 그물과 같은 딸 경숙이. 10년 전 초연 이후 경숙이로 무대에 서는 배우 주인영을 만났다.

오른 석가모니와 달리 경숙아배는 인연을 끊기는커녕 제 좋을 때 훌쩍 떠났다가 아쉬우면 연어처럼 가족들에게 회귀하고 그때마다 상처를 남긴다. 가장이 없는 집에 수용소 동지라며 꺽꺽삼촌을 맡기고 멀쩡한 아내가 있는 집에 새아내를 데리고 들어온다. 하긴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는 알 수 없는 논리로 자신을 합리화 하며 가족을 버리고 혼자 피난을 떠난 사내이다.

그런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절절히 그리워하는 딸 경숙이 역을 맡은 배우 주인영(38세)이, 2006년 초연에 이어 10년이 지난 뒤 변함없이 경숙이로 무대에 선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세월동안 그는 20대에서 30대로, 미혼에서 기혼의 아기엄마로 변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앳된 얼굴과 무구한 눈빛이다.

경숙아배의 장구와 신발, 배우 주인영의 자유

경숙아배는 가족보다 자신의 꿈이 먼저인 사내로 장구 하나 둘러메고 처자식을 저버린 채 평생을 밖에서 떠도는 아버지다. 경숙아배는 아버지가 남긴 장구와 신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을 온전히 삶의 나침반으로 삼는다. 경숙아배에게 장구는 예술을, 신발은 자유를 상징하는 듯하다. 네 살배기 아들을 둔 배우 엄마는 아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까. 그에겐 아들에게 남기고픈 장구와 신발 같은 것이 있을까.

> "아니요. 아무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저 자유롭게 살길 바라죠. 자유롭고 행복하게! 너무 많은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결혼을 하고 나니 자유의 영역이 적어졌어요. 신나게 골목길, 뚝방길 누비며 자유롭게 지냈던 제 어린 시절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제 아이도 규칙적인 생활을 바탕으로 삼도록 하되 자유롭게 키우고 있어요."

그의 말은 극중 경숙아배가 "나무는 사람처럼 복잡하지 않다. 저 자라고 싶은 대로 자라도 크면 다 멋있다."고 한 말과 겹친다. 예술가 엄마는 아버지로서는 낙제점이

지만 어떤 의미에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떠돈 경숙아배를 이해한다고 한다. 아들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그저 '자유'라며, 자유로운 영혼의 지중해인 '그리스인 조르바'를 그린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생전에 남긴 묘비명을 떠올린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라는... 예술가는 마땅히 자유의 후예들일 터이다.

낯선 나를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2006년 초연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해 올해의 예술상, 대산문학상(희곡상), 한국연극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동아연극상 4개부문(작품상, 희곡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등을 휩쓸었으며, 연극의 인기에 힘입어 2009년에는 KBS 드라마로 제작되기까지 했다. 배우 주인영은 김영필, 고수희, 황영희 같은 연기파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2006년 초연 때부터 줄곧 주인공 경숙이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다. 하여 이 작품으로 히서연극상의 '기대되는 연극인상' 등을 받았다. 특유의 천진한 이미지로 최근에도 일본 연출가 노다 히데키의 문제작 '반신'에서 어린아이 역할을

맡기도 했다. 출산 후에는 연극 '별무리'의 주인공을 맡아 사랑을 화두로 여성의 폭넓은 감성의 스펙트럼을 보여줬다. 연극계에서 '스타의 산실'로 꼽히는 극단 '골목길'의 간판 배우로 자리매김한 그이다. 그러나 세상의 박수갈채가 배우에겐 어떤 안정감도 주지 못했다. 배우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끝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한 것은 연극영화과의 문을 두드릴 때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대학 가기 전까진 연극에 대한 이해가 전무했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연극을 본 적도 거의 없어서 학교 학예회에서 본 연극이 전부였죠. 무지한 상태에서 막연한 동경으로 연극영화과에 갔는데 친구들이 아주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미학을 공부하고 싶다거나 하면서 진지하게 연극을 바라보고 꿈을 이야기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열등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2학년 마치고 배낭여행을 떠났어요. 일종의 현실도피였어요. 마음에서 울리는 '어서 도망쳐!'라는 소리를 따라 무작정 갔어요."

모든 것이 낯선 첫 해외여행의 도착지 런던에서부터 고생은 시작되었다. 어영부영하는 사이 밤이 되어 교통편이 모두 끊겨 노숙을 시작했다. 이후 50여 일의 여행기간동안 노숙은 일상이 되었다. 런던의 거지가 버리고 간 동전을 주워 음료수를 사서 마시고 어쩌다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묵는 날이면 그곳에 남겨진 음식들을 모아서 가지고 다니며 끼니를 해결하기도 했다. 그렇게 고생스런 여행을 하면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내안의 나'를 발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연극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그는 도피성 여행을 떠났다. 티베트, 몽골, 라오스, 베트남 등 도시의 편리함에 익숙한 자신을 낯선 곳으로 떠나보냈다.

"여행은 익숙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단절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지의 힘이 마음의 근육을 키워주기도 하고요.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예컨대 우리나라에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소리 내서 독백할 수 없잖아요. 여행지에선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인영아, 그때 너는 그러지 않았니?'하면서 자신과 대화를 나누기도 해요. 알아듣는 이가 없으니 눈치 볼 것 없이. 낯선 곳에서 제 행동을 보면서 스스로를 관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중독에 가까운 기쁨이에요."

행복하기에 무대에 오른다

인생은 선택, 연극배우의 삶을 사는 이유를 묻자 배우 주인영은 아직까지는 그것이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담담히 말했다. 시간이 가면 바뀔지도 모른다며 자유로운 영혼 특유의 바람을 닮은 웃음을 지었다.

"배우는 기다리는 게 일이에요. 연극을 쉬고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이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울하곤 했어요. 연극을 할 때 행복해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아이에게도 그런 제 모습이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해요. 일 하는 엄마를 보고 아이가 엄마는 왜 일하냐고 물을 때 '이 일은 내 행복이란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아이는 자신의 행복이 뭘까 생각하며 찾는다고 해요. 저도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주인영 씨는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희생을 강요하기 보단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한다. '자유로운 엄마'는 쉬 그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서 또렷한 가능성이 느껴지기도 했다.

글 **박현숙**

ASAC Stage

16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20 2016 ASAC 아침음악살롱 〈현의 여행〉
22 경숙이, 경숙아버지
26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2016 프로그램

당신이 만날 최고의 품격,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장대한 역사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는다.
원작 소설의 탄탄한 구성력과 영화의 거대한 스케일을 차용하면서도 장르적인 재미와 감동을 배가시키는 환상적인 무대가 등장한다.
또한 디지털화된 무대 운용 방식을 벗어나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를 구현한다. 이렇듯 세계인이 함께 감동한 원작 이야기와 무대의 판타지가 만나 격조 높은 뮤지컬을 탄생시켰다.

무대의 방대한 스케일, 그리고 이를 뛰어넘는 열린 감동

노예제도가 아직 남아있던 시기에, 삶과 노동에 억눌려있던 노예들이 부르는 희망과 절망에 대한 합창은 국적과 역사를 뛰어넘는 열린 감동을 제공한다.
또한 '스칼렛 오하라'와 '레트 버틀러'의 사랑, 그리고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와 적절히 배합된 음악은 뮤지컬만의 매력을 더한다. 대극장 무대를 가득 채우는 방대한 스케일은 한 단계 진보한 대극장 뮤지컬의 풍성한 재미를 줄 것이다.

금세기 역사상 가장 로맨틱한 스토리! 세계적 밀리언셀러 원작소설의 감동을 이제 무대에서 만난다!

1. 새로 태어난 명작! 더해진 감동으로 돌아온다!

새로운 크리에이티브의 합류! 더욱 탄탄해진 무대로 다시 찾아온다!
2015년 초, 초연 리뷰 및 관객평 참고, 전체적인 이야기 구조를 보완, 전면적 각색
레트 버틀러, 스칼렛, 멜라니, 애슐리의 정확한 캐릭터 정립
레트 버틀러의 솔로곡을 추가, 그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킬 겟!
레트 버틀러의 딸 보니의 캐릭터 구성으로 탄탄한 스토리 보강
초연에서의 프랑스식 산만한 안무 삭제 및 한국식 스토리 안무 수정

2. 시간으로도 지워지지 않을 명작

미국에서 성서 다음으로 많이 읽힌 밀리언셀러, 퓰리처상 수상
전 세계 12억이 관람한 동명 원작! 아카데미 8개 부문 수상 최다 수상 기록
네이버 영화가 뽑은 헐리우드 최고의 마지막 대사 선정!

3. 전쟁 속에 피어난 대서사시!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운명과 사랑 대서사시
뜨거운 열정을 품은 여인 스칼렛 오하라, 그녀를 사랑한 연인 레트 버틀러

4. 매혹적인 음악과 화려한 무대

가슴을 적시는 듀엣부터 노예들의 울림 있는 합창과 군무
유럽의 마에스트로 제라르 프레스귀르빅의 주옥같은 넘버 26곡과 새롭게 추가된 넘버
노을 지는 황혼의 키스 씬, 남부의 화려한 무도회 등을 재현한 무대와 의상

SYNOPSIS

1막

남북전쟁 전의 미국 남부는 새로운 문명과는 단절 된 채 옛 관습과 전통에 묻혀 살아가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북부가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남부에도 이를 강요하자 남부는 연방을 탈퇴, 남과 북은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조지아주 타라 농장의 장녀 스칼렛 오하라(Scarlett O'Hara)는 빼어난 미모와 늠름한 성격으로 청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스칼렛이 사랑하는 남자는 애슐리 윌크스(Ashley Wilkes) 뿐. 하지만 애슐리는 멜라니를 사랑하고 있다. 다정한 멜라니와 애슐리의 모습에 질투를 느끼는 스칼렛. 애슐리에게 열렬한 사랑을 고백하는 스칼렛. 애슐리는 멜라니를 생각하며 스칼렛의 마음을 거절한다.

그 무렵 그녀 앞에는 영국 출신이면서 행실이 나쁘다고 소문난 험상궂고 남성다운 레트 버틀러(Rhett Butler)가 나타나자 거만한 스칼렛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 간다.

하지만 애슐리가 그녀의 착한 사촌 멜라니(Melanie Hamilton)와 결혼하자 스칼렛은 홧김에 동생 인디아(India)와 결혼하기로 되어있던 멜라니의 남동생 찰스(Charles Hamilton)와 결혼해 버린다.

그러나 찰스는 입대하자마자 전사하고 만다. 레트는 스칼렛에게 사랑을 구한다.

스칼렛의 마음에는 애슐리만이 존재하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상복을 입은 스칼렛은 여전히 애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그러는 중 전황은 점차 남부에 불리해져 조지아 주 애틀랜타까지 북군이 쳐들어온다.

레트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전쟁터로 향한다. 기진맥진한 멜라니와 도착한 고향은 어머니의 죽음과 실성한 아버지, 그리고 혹독한 가난만이 기다린다. 하지만 스칼렛은 이를 헤쳐 나갈 것임을 하나님께 맹세한다.

2막

북군으로 인해 남부의 점령지는 수난을 겪는다. 전쟁에 나섰던 남부의 청년들이 점차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찰스의 형 케네디도 돌아와 스칼렛에게 구애를 한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애슐리 뿐이다. 스칼렛은 세금 300달러를 내지 못해 고난을 겪고, 이때 정신이 나갔던 아버지가 말을 타다 떨어져 죽는다.

이때 전쟁 때문에 큰돈을 번 레트가 군 형무소에 있다는 사실을 안 스칼렛이 그를 찾아가지만 또 다시 그의 빈정거림만 받는다. 이에 스칼렛은 동생의 약혼자인 프랭크 케네디(Frank Kennedy)와 결혼하여 세금을 해결한다. 프랭크와 애슐리는 정치모임에 나갔다가 프랭크가 총에 맞아 죽고, 애슐리는 다행히 레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스칼렛은 결국 돈 많은 레트의 구애를 받아들여 결혼식을 올린다. 하지만 애슐리를 연모하던 스칼렛의 마음이 날이 갈수록 더해가자 스칼렛과 레트는 싸움이 연일 그치지 않고, 레트는 오직 딸 보니가 커가는 것을 위안으로 삼아 살아간다. 스칼렛은 애슐리와 있는 것을 주위 사람들도 알게 되어 곤경에 처하게 되는데, 자신과 애슐리의 관계를 냉철히 알고 호되게 질책하는 레트에게 점차 이끌리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후에도 자존심 때문에 두 사람의 다툼은 계속된다. 여기에 그토록 아끼던 보니가 말에서 떨어져 죽자, 레트는 더 없는 실의에 빠진다. 더구나 두 사람을 항상 위로해 주던 멜라니마저 쓰러진 후 결국 숨을 거두고, 스칼렛은 커다란 슬픔을 겪게 된다. 그리고 애슐리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닌 멜라니임을 안 스칼렛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레트임을 알고 그에게로 달려오지만, 레트는 미련 없이 그녀 곁을 떠난다.

CAST

스칼렛 오하라役

바다

김지우

레트 버틀러役

신성우

김법래

윤형렬

애슐리 윌크스役

에녹

손준호

멜라니 해밀튼役

오진영

정단영

노예장役

박송권

최수형

마마役

최현선

벨 와틀링役

강웅곤

난아

제럴드오하라役

최병광

노예장 얼터네이트役

김주왕

2016 ASAC 아침음악살롱 〈현의 여행〉

해설 이석렬

- 대한민국 오늘의예술상 심의위원, 예술의전당 예술대상 평가위원
- 서울대학교 음악이론 학사, 석사, 박사과정
- 충무아트홀 '이석렬과 함께하는 클래식여행' 진행
- 공연에술지 〈객석〉, 〈피아노음악〉 등 매체 기고

음악으로 시민들에게 달달한 아침을 선물 해온 안산문화재단의 아침음악살롱이 2016년도에도 변함없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찾아온다.
소극장에서 아티스트와 가까이 호흡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을 선보였던 이전의 프로그램에서, 올해는 클래식을 깊이 있는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별히 올해는 〈현의 여행〉을 테마로, 국내의 정상급 현악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깊이 있는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2016년 4월, 첫 아침음악살롱을 문을 여는 연주자는 지난 2014년 한국인 최초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 우승을 통해 정상급 실내악단으로 거듭난 '노부스 콰르텟'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리더인 '김재영'이 출연한다. 이어 6월에는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온 완벽한 테크닉과 따뜻한 음색의 소유자 비올리스트 김상진이 무대에 오른다. '한국 클래식 기타리스트의 미래'라는 평가를 받는 박종호와 대전시향 제2악장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 비올리스트 조형국, 네덜란드와 독일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첼리스트 정광준으로 구성된 '솔리 판 투티'가 8월 독특한 구성의 앙상블로 안산을 찾아온다. 10월,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줄리어드와 맨해튼 대학 출신의 젊은 한국 연주자들이 모인 '클래시칸 앙상블'이 젊고 패기 있는 현악 앙상블 무대를 선사한다.
또한 음악 평론가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이석렬이 이번 아침음악살롱 무대를 이끌어, 보다 풍성하고 알찬 해설로 관객과 호흡할 예정이다.
2016년 ASAC아침음악살롱은 기존 별무리극장에서 달맞이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풍성한 선율을 감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국내를 대표하는 현악 아티스트들이 선사하는 정통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이 이제 곧 시작된다.

TIP

공연일시 : 4월 26일(화), 6월 28일(화), 8월 30일(화), 10월 25일(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 11시
공연장소 : 달맞이극장
티켓가격 : 전석 1만 5천 원 / 조기예매 20%, 패키지 30%~최대 40%
관람시간 : 60분
공연 종료 후에는 맛있는 커피와 다과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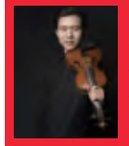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

- 2003 그리스 영 바이올리니스트 국제콩쿠르 2위
- 2003 사라사테 국제콩쿠르 4위
- 2007 윤이상 국제 콩쿠르 3위 특별상,
- 2010 몬트리올 국제 콩쿠르 파이널리스트, MIMC 제37회 루이스 시갈 콩쿠르 3위 지겐 콰르텟 소속
- 2005 프라하 국제 현악 콩쿠르 2위, 최연소상, 현대곡상, 말러상 노부스 콰르텟 소속
- 2008 오사카 챔버 국제음악콩쿠르 3위 리옹 챔버 국제음악콩쿠르 3위
- 2012 하이든 국제실내악 콩쿠르 3위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 대상
  ARD 국제음악콩쿠르 2위
- 2014 국제 모차르트 콩쿠르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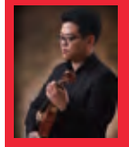
비올리스트 김상진

- 1991 동아 음악 콩쿠르 1위(비올라 최초 우승)
- 1995 쾰른 음대 한국 비올라 연주자 최초 최고점수 'Auszeichnung' 획득
- 2001 대통령 상 수상
- 2002 "대한민국 문화홍보 대사"로 임명, 세종 솔로이스츠, 금호현악사중주단 활동 KBS교향악단, 서울시향, 코리안 심포니 등 주요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솔리스트 초청 MIK 앙상블, 코리아나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 화음 체임버 오케스트라 수석 비올리스트 활동

솔리 판 투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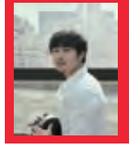


바이올리니스트 이현웅
모스크바 국제 콩쿠르 1위
브람스 국제 콩쿠르 1위



비올리스트 조형국
댈러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객원단원
리처드슨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단원 역임

첼리스트 정광준
네덜란드 Charles Hennen 국제 실내악 음악 콩쿠르 1위
그리스 Thessaloniki 국제 콩쿠르 1위 및 특별상



클래식기타리스트 박종호
한국기타협회 콩쿠르 1위 전국기타콩쿠르 1위 없는 2위
국내 클래식 기타리스트 최초 DECCA 레이블

클래시칸 앙상블(현악 앙상블)

세계 수준의 체임버 오케스트라를 지향하는 클래시칸 앙상블은 2007년 뉴욕의 음악 명문 줄리어드, 맨하튼 대학 출신의 한국인 연주자들이 결성하였다. 현재 국내·외 최정상급 17명의 연주자들이 견고하고 완벽한 앙상블 속에서 개인의 색채가 어우러지는 컨덕터레스(지휘자가 없이 연주되는) 체임버 오케스트라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ASAC 우수연극

> 갈 데까지 간 '끝장' 아부지와
> 어이없이 '깜찍한' 딸년의
> 엎치락뒤치락 가족사,
> 웃음과 눈물로 버무린
> 우리네 '뽕짝'같은 공연

경숙이, 경숙아버지

2016년 4월 21일(목) ~ 2016년 4월 23일(토) 목-금 8PM, 토 3PM, 7PM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R석 3만 원, S석 2만 원 8세 이상 관람가 관람시간 : 100분 (인터미션 없음)

2016년을 여는 첫 ASAC우수연극!
주요 연극상을 휩쓴 '박근형'의 히트작

[2006 한국연극 평론가협회 선정
올해의 연극 베스트3]
[2006대산문학상 (희곡상)]

[2006 동아연극상
4개부문수상
(작품상, 희곡상,
연기상, 신인연기상)]

[2006 **올해의 예술상**]
[2006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2006년 주요 연극상을 휩쓸고, 2007년에는 배우 조재현이 가세하며 최고의 화제 흥행작으로 떠올랐던 화려한 프로필의 연극 〈경숙이 경숙아버지〉. 2015년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만주전선'을 선보였던 연출가 박근형의 히트작으로 주요 연극상을 휩쓸고 2007년 연말 인터파크가 조사한 '관객이 뽑은 최고의 연극'에서 2위를 차지하며, 평단과 관객 모두의 열렬한 지지와 호응을 받아온 작품이다.

갈 데까지 간 '끝장' 아부지와 어이없이 '깜찍한' 딸년의 엎치락뒤치락 가족사, 웃음과 눈물로 버무린 우리네 '뽕짝'같은 공연

경숙이 경숙아버지는 한국전쟁 무렵을 배경으로 가족을 내팽개치고 자유를 찾아 세상을 방랑하는 이기적인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를 지켜보는 딸의 애증을 그린 작품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면서도 대립하고, 이해하면서도 갈등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흥겨우면서도 눈물 나고, 눈물 나면서도 웃음 나는, 웃음과 눈물로 버무린 우리네 '뽕짝'같은 공연이다. 현시대 소시민의 일상을 펼쳐 보이며, 우리의 우울한 일상의 끝은 절망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면서도 관객에게 어딘가에 있을 희망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매력적인 연극이다. '경숙이 경숙아버지'의 작품성과 흥행성은 TV 특집극으로 제작, 방영 되어 다시 한 번 증명되었다. 설날특집 4부작으로 KBS 2TV에서 방영 된 '경숙이 경숙아버지'(2009년)에서는 정보석이 경숙아버지로 분하여, 드라마로도 큰 호평을 받았다. 김영필-정보석, 고수희-홍수민, 주인영-심은경 등 TV 드라마와 원작연극 출연진들의 연기를 비교해보는 재미, 연극무대의 생략기법과 상상력을 TV 드라마의 사실적 표현과 함께 비교하여 보는 재미가 더해질 것이다.

초연 흥행몰이의 주역, 연극계 대표 명품배우 김영필, 주인영, 고수희 등 연기파 배우 대거출연!

이번 공연에는 2006년 초연배우들이 대거 참여하며 초연의 열정과 농익은 앙상블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와 드라마, 연극을 넘나들며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는 어매 역의 '고수희', 고수희는 2009년 일본의 요미우리 연극대상에서 여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작품으로 동아연극상 신인상을 거머쥐었던 경숙 역의 '주인영', 탁월한 집중력과 연기력으로 마니아층을 거느린 아배 역의 '김영필'도 자리를 지킨다.

(줄거리)
아버지는 일제말기 소 판 돈을 가지고 집을 떠나 만주 친구를 만나러 가출을 한다. 해방 후 어머니를 속여 결혼을 해서 나(경숙

이)를 낳는다. 억척스런 어머니 때문에 잠시 행복이 찾아오는가 싶더니 갑자기 전쟁이 터지자 나와 어머니를 버리고 혼자 남쪽으로 피난길을 떠난다. 그러다 낙동강 근처에서 인민군의 포로가 되고 포로신세를 면하려고 인민군에 자원입대를 하게 된다. 전쟁이 끝나고 거제도 수용소에서 석방된 아버지는 무일푼으로 집에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 아버지를 극진히 모시는 어머니... 아버지는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아들을 못 난다고 구박을 하기 시작한다. 급기야 아버지는 젊은 여자를 만나 집을 떠나 새 살림을 꾸리는데...

작, 연출 박근형

극단 골목길의 대표 및 연출가, 극작가 1999년 '청춘예찬'으로 그 해 연극계의 모든 상을 휩쓸며 평단과 관객에게 이름을 알렸고, 연극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연출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시대 소시민의 일상을 그대로 무대 위에 옮겨놓음과 연극적인 양식과 어법, 인위적인 연기에 反한 표현이 특징이다. 우리의 우울한 일상의 끝은 절망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여주면서도 관객에게 어딘가에 있을 희망의 존재를 상기시키게 하는 매력적인 연출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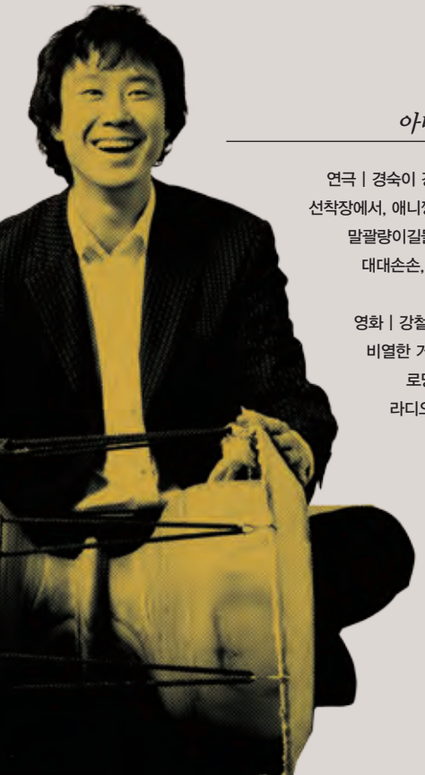
수상경력

김상렬 연극상(2005), 올해의 예술상(2005) 동아일보 차세대를 이끌고 갈 연출가 1위 선정(2003)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BEST 3 – 대대손손(2000), 동아연극상 작품상, 희곡상 – 청춘예찬(2000)
백상예술대상 희곡상 – 청춘예찬(2000), 문화관광부 장관상(1999) KBS 문예진흥원 공동주관【발굴 이사람】선정(1999)
평론가협회 작품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 청춘예찬(1999),
청년예술대상 희곡상(1999)
연극협회 신인연출상, BEST 5 작품상 – 청춘예찬(1999)

주요작품 작, 연출

백조의 호수, 만주전선, 삽 아니면 도끼, 히키코모리 밖으로 나왔어, 로미오와 줄리엣, 베키쇼, 시대유감, 피리 부는 사나이, 청춘예찬, 경숙이 경숙아버지, 빨간버스, 유령소나타, 전명출평전, 단막극연작, 잠 못드는 밤은 없다, 햄릿 업데이트, 아침드라마, 고래, 너무 놀라지 마라, 바다거북의 꿈, 마라, 사드, 위대한 캣츠비, 돌아온 엄사장, 포트, 필로우맨, 맨드라미 똧, 서쪽부두, 선착장에서, 눈사람, 선데이 서울 외 다수

주요출연진



아배 – 김영필

연극 | 경숙이 경숙아버지, 포트, 선착장에서, 애니깽, 돌아온엄사장, 말괄량이길들이기, 청춘예찬, 대대손손, 서울의비외 다수

영화 | 강철중:공공의적 1-1, 비열한 거리, 그놈 목소리, 로망스, 파란자전거, 라디오 데이즈 외 다수

어매 – 고수희

연극 | 경숙이 경숙아버지, 야끼니꾸드래곤, 청춘예찬, 삼총사, 딜러스 초이스, 20세기소년소녀 창가집, 대대손손, 꽃다방 블루스, 맨드라미꽃 외 다수

영화 | 플란다스의 개, 친절한 금자씨, 분홍신, 괴물, 그놈 목소리, 천년학 외 다수

수상 | 2006 동아연극상 연기상

경숙 – 주인영

연극 | 경숙이 경숙아버지, 야끼니꾸드래곤, 깃븐우리절믄날, 아오모리의 비, 내 동생의 머리를 누가 깎았나, 백무동에서, 아오모리의 비, 서울의 비, 맨드라미 꽃, 기생비생춘향전 외 다수

수상 | 2006 동아연극상 신인상
2006 히서연극상 기대되는 연극인상

할인정보

- 조기예매 할인 20% (~3. 14.(월)까지 예매 시)
- 단체할인 25% (동일 회차 10인 이상 예매 시)
- 문화릴레이 15% (1매당 2장 할인 적용)
- 예술인패스, 문화패스 30% (패스소지자)
- 청소년할인 50% (초,중,고등학생/본인만)
- 복지할인 50% (장애인/동반1인, 65세이상/본인만, 국가유공자/동반1인, 행복플러스카드/가구당 2인)

안산문화재단 상주단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2016 첫 기획공연

애매모호한 밤

등 선보여…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는 2015년 안산문화재단의 상주예술단체로 선정된 이후 다양하고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안산과 군포에서 공연되었던 신작공연 〈예술을 위한 조화〉는 우수한 상주단체 공연을 선발하는 '경기공연예술페스타'의 '베스트 컬렉션' 작품으로 선정, 올 초 안양에서 재공연되기도 했다.

이에 올해, 상주 2년차를 맞아 지역에 좀 더 밀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장르와의 협업 과정을 통해 보다 내실을 다지는 단체로의 발전과 한 단계 업그레이된 공연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기획공연

〈애매모호한 밤〉 2016. 4. 29. (금)~30. (토)

안산문화재단 상주예술단체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의 2016년 첫 기획공연으로는, '애매모호한 밤'이라는 타이틀로 별무리극장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그동안 단체가 공연해왔던 레퍼토리 작품인 '공존', '실수', '리얼리티', '숨 쉬듯이', '바디콘서트', '조화로운 삶' 등 8개의 레퍼토리 작품들을 소속단원들이 직접 선정하고 발전시켜 시민들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언어〉 2016. 6.

2009년 Sidance '힙합의 진화'에서 초연된 '언어'라는 20분 버전의 공연을 재구성하여 1시간 버전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이 작품은 앰비규어스의 작품적 메소드를 담았던 작품으로, 단체가 가진 춤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앞으로의 예술적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2015년부터 준비 중인 공연이다.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바디콘서트〉 2016.12.

바디콘서트는 앰비규어스의 대표작품으로 무용공연에 입문하는 관객에게는 무용 교과서와 같은 공연이 될 것이다. 2014~2015 ASAC몸짓콘서트(서울·안산)에서의 열화와 같은 반응에 힘입어 2015년 ASAC몸짓페스티벌에서 풀버전의 공연을 선보인 바 있다. 당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엄청난 반응을 이어왔다. 발레, 한국무용, 힙합 등 춤의 모든 장르가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는 공연으로, 앰비규어스는 매년 연말에 바디콘서트를 공연하며 연말 레퍼토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지친 한 해의 마무리로 앰비규어스의 열정과 춤의 향연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IP

2016 첫 기획공연 〈애매모호한 밤〉
공연일시 : 2016. 4. 29.(금) ~ 30.(토)
공연장소 : 별무리극장

※신작공연

〈뿌리〉 2016.8.

신작의 타이틀은 '뿌리'다. 앰비규어스의 안무가 김보람은 전통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전통을 이야기 하는 작품을 해본 적은 아직 없다. 이번 작품을 통하여 한국의 소리와 역사, 그리고 전통의 소중함을 단체의 방식대로 애매모호하게 찾아 갈 계획이다. 음악 감독으로 소리꾼 윤석기를 선정하여,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전통음악을 콘셉트로 진행할 공연은 약 3시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국내 무용 작품으로는 보기 드문 공연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이번 신작 공연은 안산문화재단에서 2013년부터 선보여 온 무용 축제 〈ASAC몸짓페스티벌〉의 프로그램으로 국내 초연 공연을 예정하고 있다.

Culture Trend

32 테마가 있는 미술 |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메디치가 사람들
37 테마가 있는 공연 | 연극 속의 연극, 극중극 체홉 〈갈매기〉의 극중극
42 테마가 있는 음악 | 역사와 오페라 고대 로마를 다룬 오페라
48 칼럼 | 노년기 정신건강과 음악의 치료적 효과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메디치가 사람들

미술의 발달에 있어서 창작자만큼 중요한 것이 패트론(patron), 즉 후원자의 역할이다. 2016년 〈테마가 있는 미술〉은 르네상스 이후 미술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후원자들의 활동과 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한 대표적인 미술가와 작품의 사례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성기를 이끈 가문으로 예술을 통해 불멸의 명성을 얻은 메디치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브론치노, 〈코시모 데 메디치의 초상〉, 1400년대

동방박사의 행렬에 그려진 코시모의 얼굴

르네상스를 꽃피운 피렌체와 메디치가

15세기 피렌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화를 선도할 준비가 되어있었다.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며, 학문이 발달하여 많은 인재들이 모여들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원근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고, 단테와 보티첼리가 문학을 대표했으며, 성 프란체스코가 새로운 종교관을 이끌었다. 이른바 '꽃의 성모'라고 불리는 두오모 성당이 완성되어 도시의 중심이 되었다. 신은 떠나고 인간이 남았으며, 고대의 철학이 다시 살아나고 신화가 주목받았다. 르네상스(Renaissance)라는 말은 '재생' 또는 '부활'을 뜻한다. 즉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문학, 철학을 되살려 인간의 가치를 되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강력한 기독교 사상 아래 인간의 창조성을 억압받던 중세를 '어둠의 시대'로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피렌체에서는 예술가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 활동이 시작되었다. 왕이나 귀족들이 솜씨 있는 조각가와 화가를 불러 초상화나 벽화 등을 부탁하고 경제적 지원을 해준 것이다. 메디치 가문은 무역과 은행업으로 부를 쌓은 피렌체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가였다. 코시모로부터 시작해서 손자인 로렌초에 이르기까지 메디치 가문의 사람들은 보티첼리를 포함해서 도나텔로, 프라 안젤리코, 다 빈치, 미켈란젤로와 같은 르네상스의 대가들을 늘 후원했다. 이들의 경제적 후원이 결국 르네상스 미술의 토대가 된 것이다.

상인으로 태어나 국부가 되기까지, 코시모 데 메디치

14세기 초 직물교역을 통해 부를 쌓기 시작한 메디치 가문은, 조반니 디 비치가 은행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피렌체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이 되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의 예술 후원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는 바로 조반니의 장남인 코시모 데 메디치였다. 선대로부터 막대한 부와 사업 수완을 물려받은 코시모는 피렌체를 넘어 유럽 전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했다.

엄청난 부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검소하고 서민적인 삶을 살았던 코시모가 유일하게 돈 쓰는 즐거움을 느낀 것은 학문과 예술을 후원하는 일에서였다. 특히 어려서부터 고문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베르길리우스 작품 초기 텍스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그리스 및 로마 고전 문헌과 성서 관련 문헌, 그 밖의 다양한 희귀본 등 각종 문헌을 수집했다. 이 문헌들은 서구 최초의 공공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산 마르코 수도원 도서관을 조성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메디치가는 로렌조의 대에 이르러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을 조성하기에 이른다. 이곳에 수집된 장서들이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철학적, 사상적 토대가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코시모 자신이 플라톤에 심취해 연구를 지원하고 강의에도 직접 참석했으며, 플라톤 아카데미를 세워 책임자인 마르실리오 피치노로 하여금 플라톤 저술의 라틴어 번역과 편찬을 이끌게 한 점은 그의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외에도 건축가 디바르톨롬메오와 브루넬레스키, 조각가 기베르티와 도나텔로, 화가 프라 안젤리코와 고촐리 등 당대 최고 수준의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를 통해 디바르톨롬메오가 건축한 메디치가의 저택인 팔라초 메디치 리카르디와 브루넬레스키의 두오모 대성당의 돔과 같은 15세기 이탈리아 건축의 걸작들이 탄생할 수 있었다. 고촐리가 그린 〈동방박사의 행렬〉은 신약성서의 내용인 '동방박사의 경배'를 모티브로 1439년 코시모의 주도로 열린 피렌체의 공의회를 기념하여 제작한 것이다. 화가는 이 그림에서 동방박사들의 얼굴에 메

위) 프라 안젤리코, 〈수태고지〉, 1437~1446년경
아래) 고촐리, 〈동방박사의 행렬〉, 1459~1462년

디치가의 사람들을 그려넣었다. 화면 왼쪽으로 빨간 모자에 검은 옷을 입고 말을 탄 인물이 코시모이며, 화면 중앙에 화려한 황금색 옷을 입고 흰말을 탄 인물은 손자인 로렌조이다.

1464년 코시모가 세상을 떠나자 피렌체의 시민들은 그에게 '파테르 파트리에(Pater Patriae, 조국의 아버지)', 즉 국부(國父)의 칭호를 선사했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국부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그는 정치와 문화에 대한 뛰어난 식견으로 피렌체의 문예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성기의 문을 연 것이다. 이로써 메디치 가문은 이후 300년 역사의 기틀을 다지게 된다.

예술을 이용한 정치의 표본, 로렌조 데 메디치

코시모 이후 그의 손자인 로렌조 데 메디치에 이르는 80년 동안이 메디치 가문의 전성기이자 동시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전성기였다. 로렌조는 1449년 코시모의 아들 피에로 메디치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1469년 20세의 나이에 피렌체 공화국의 지배자 자리를 물려받았다. 동시대 사람들에게 일 마니피코(Il Magnifico), 즉 '위대한 자'라고 불린 로렌조는, 활달한 성격으로 마상 시합과 사냥을 즐겼고, 시인이자 오르간 연주자였으며, 최고의 인문학적 소양으로 주변인들을 사로잡을 줄 알았다.

선대에 이어 예술 후원에도 적극적이었다. 많은 역사가들이 로렌조의 후원 활동을 순수한 예술적 목적이 아닌 정치적 야심을 위한 선택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로렌조는 천재적인 예술가들과의 친분과 진귀한 미술품 컬렉션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로렌조는 숙적인 교황 식스투스 4세를 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밀라노의 스포르차의 환심을 얻기 위해 다 빈치를 그에게 소개했으며, 각종 미술품들은 자신의 문화적, 경제적 우위를 주변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보티첼리 〈프리마베라〉, 1478년경

하지만 로렌조의 후원 활동이 15세기 피렌체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운동의 중심지가 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는 르네상스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예술가들에게 많은 작품을 의뢰하여 메디치 궁을 장식했다. 어린 미켈란젤로의 재능을 알아본 이도 로렌조였다. 그는 미켈란젤로를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여 자식들과 똑같이 함께 식사를 하며 돌보았고, 각종 진귀한 미술품이 보관된 저택의 수장고 열쇠를 그에게 선사하여 고대의 걸작들을 직접 보고 재능을 연마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다 빈치의 스승인 베로키오 역시 로렌조의 주문을 받아 공방을 크게 키워나갔다.

보티첼리 역시 로렌조가 인정한 화가 중 하나였다. 그러나 그에게 실제로 그림을 주문한 이는 로렌조의 육촌 동생인 피에르 프란체스코 데 메디치였다. 그는 자신의 여름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 보티첼리에게 〈비너스의 탄생〉과 함께 〈프리마베라〉를 주문했다. 이중 비너스의 사랑의 정원에 찾아온 봄의 모습을 그린 〈프리마베라〉는 1475년 기마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그의 연인 시모네스 베스푸치의 사랑을 축복한 시인 안젤로 폴리치아노의 시 '라 지오스트라'를 형상화한 것이다.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의 새로운 커플을 축복하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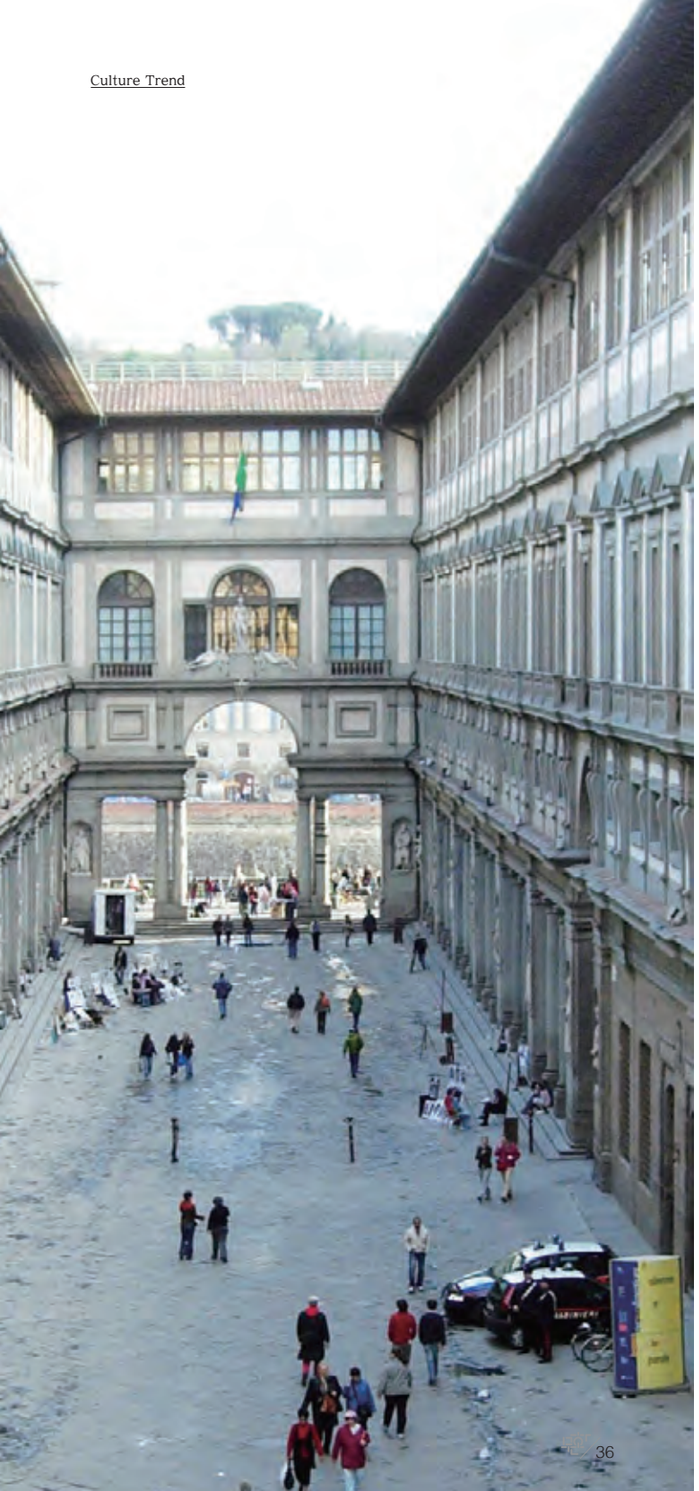
라파엘로, 〈레오 10세의 초상〉, 1518~1519년

브론치노, 〈로렌조 데 메디치의 초상〉, 1400년대

메디치가, 예술로 불멸의 명성을 얻다.

1492년 로렌조의 사망 이후 메디치가는 전성기를 지나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러나 여전히 그 세력은 이탈리아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그 중심에는 교황 레오 10세가 있었다. 라파엘로가 그린 〈레오 10세의 초상〉은 메디치 가문 출신의 레오 10세 교황과 두 인물을 그린 그룹 초상화이다. 레오 10세의 본명은 조반니 데 메디치로, 1513년에 교황에 등극했다. 왼쪽의 인물은 훗날 교황 클레멘트 7세가 되는 줄리오 데 메디치이며, 오른쪽은 추기경인 루이지 데 로시이다. 정치적 권력에 이어 종교적 권력까지 장악한 메디치 가문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가문이 쇠락하는 가운데 메디치의 예술 후원 활동을 불멸의 명성으로 이끈 이는 메디치가의 마지막 상속녀인 안나 마리아 루이자였다. 그녀는 1737년 메디치궁과 소장품을 국가에



기증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된 미술관으로 변모시켰다. 그렇게 탄생한 곳이 우피치 미술관이다. 우피치 미술관은 본래 메디치가의 개인 갤러리로 조성되었다. 16세기 중반에 투스카니 지역의 대공이었던 코시모 1세의 주문으로 바자리가 건축했으며, 메디치가의 개인 집무실로 이용되다가 소장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오늘날 우피치 미술관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초기부터 전성기까지의 주요작품이 모여 있다. 피렌체 화파의 선구자인 치마부에와 지오토의 제단화뿐 아니라 전성기 르네상스의 3대 화가인 다 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의 회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으니 메디치가의 저력에 다시 한 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은 짧지만 예술은 길다고 했던가. 이탈리아를 호령하던 코시모와 로렌조의 권세는 세월과 함께 먼지처럼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예술품이 오늘날의 메디치가의 명성을 대신하고 있으니 가히 틀린 말은 아닌 듯싶다.

우피치 미술관의 전경

글 **강은주**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학예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현재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있다.

연극 속의 연극, 극중극
체홉 〈갈매기〉의 극중극

김소희연출 갈매기! ©연희단거리패

초연 당시 니나역을 맡은 베라 코미사르_스카야©mxatmuseum

시간과 상처 속에 무르익은 독백

극중극(劇中劇, Play within a play)이란 말 그대로 하나의 연극 안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연극을 뜻한다. 공연 도중 등장인물들이 극중 배우가 되어 또 다른 공연을 펼치거나, 원래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극 속의 다른 이야기 형태로 들려주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이야기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극 구조 중 하나이다.

극중극이 무대에 펼쳐짐으로써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시선'의 층위가 복수로 변한다는 점이다. 원래 연극은 '보여지는 자'인 연기자와 '보는 자'인 관객의 관계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극중극이 시작되면 연기자들 사이에서도 '보여지는 자'와 '보는 자'의 층위가 나뉘어진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실제 관객들은 극중극의 관객이 되는 배우들을 통해 무대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거울을 비추듯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연극 속의 연극, 극중극〉 시리즈는 앞으로 극중극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연 6편을 통해 극중극의 의미와 효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시리즈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작품은 영원한 배우의 상징, 니나의 극중극으로 유명한 체홉의 〈갈매기〉이다.

연극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연극

체홉의 4대 장막극(〈갈매기〉 〈바냐 아저씨〉 〈세 자매〉 〈벚꽃동산〉)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과 더불어 가장 자주 공연되는 작품들이지만, 그중에서도 〈갈매기〉는 해마다 빼놓지 않고 올라가는 우리 연극계의 스테디셀러라 할 수 있다. 특히 〈갈매기〉는 관객뿐만 아니라 연출이나 배우, 스태프 등 연극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 작품 자체가 바로 '연극에 대한', 그리고 '연극을 위한' 연극이기 때문이다.

김석만연출 갈매기 ©명동예술극장

앨리극장 극중극 ©T. Charles Erickson

일단 〈갈매기〉에는 성공한 작가와 유명 여배우, 그리고 작가 지망생과 배우 지망생 등 연극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들은 '극중극'의 형식으로 작품 안에서 직접 연극을 만들어 보여주기도 하며, 때로는 연극은 어떠해야 한다는 자기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 팽팽하게 대립하기도 한다. 또한 이 작품의 인물들은 크게 '진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껍질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뉘는데, 이들을 구분 짓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연극을 바라보는 시선이다.

막이 오르면, 달빛이 비치는 호숫가에서 연극무대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작가 지망생인 트레플레프가 쓴 희곡을 그의 연인이자 배우 지망생인 니나가 연기하는 무대로, 이들을 지켜보기 위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관객으로 동원되어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중에는 이미 유명한 여배우로 명성이 자자한 트레플레프의 어머니 아르카지나와 그녀의 연인인 잘나가는 작가 트리고린도 포함되어 있다. 이윽고 극중극이 시작되면 호수를 무대배경으로 한 채, 하얀 옷으로 온 몸을 감싼 니나가 등

장해 길고 긴 독백을 읊조린다.
"사람들, 사자들, 독수리, 뇌조들, 뿔 달린 사슴들, 거위, 거미, 물속에 살던 말 없는 물고기들, 불가사리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 한 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모든 생명들이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갔노라. … 춥다. 춥다. 춥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공허하다. 두렵다. 두렵다. 두렵다. 살아 있는 존재들의 몸은 먼지로 변해 사라지고, 영원한 물질은 이들을 바위로, 물로, 구름으로 만들어버렸노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영혼은 하나로 합쳤노라. … 내 속에 알렉산드로스의 영혼, 카이사르의 영혼, 셰익스피어의 영혼, 나폴레옹의 영혼, 그리고 가장 열등한 거머리의 영혼도 함께 있노라. 내 속에 인간들의 의식이 동물들의 본능과 합쳐 있으며, 나는 그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을 기억하노라.(〈체홉 희곡선〉 체홉 저, 박현섭 역, 을유출판사 중 발췌)"
드라마적이라기보다는 철학적이고, 감정보다는 사유를 자극하는 트레플레프의 난해한 극중극에 아르카지나를 비롯한 극중 관객들은 조롱 섞인 농담만을 건네고, 모욕감을 느낀 트레플레프는 공연 도중 막을 내려버린다. 흥미로운 것은 극중극의 내용 자체보다도 이 극중극에 반응하는 무대 위 관객들의 태도인데, 여기서 트레플레프의 극중극을 바라보는 인물 하나하나의 모습은 그들이 연극을, 예술을, 나아가 삶을 대하는 태도와도 비슷하게 이어진다.
여배우로서의 명성과 오만에 찌들어있는 아르카지나는 아들의 새로운 연극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트리고린은 아예 남의 연극 자체에 관심이 없다. 마샤는 연극보다 사랑하는 트레플레프의 모습을 쫓고 있고, 메드베젠코는 연극의 가치마저 돈이나 수치로 환산하려 든다. 한편 폴리나와 샤므라예프는 연극이 시작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만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다. 1막에서 극중극을 대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후 2~4막에서 보이는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연극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그들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다.

김소희연출 갈매기 ©연희단거리패

날개 꺾인 갈매기의 아름다운 비상

다른 인물들의 연극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가 시종일관 바뀌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갈매기〉에는 매우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이는 인물이 하나 있다. 바로 트레플레프의 극중극을 연기했던 배우 지망생, 니나 자레치나야이다. 1막에서 니나는 맑고 밝고 사랑스러운 소녀지만, 삶에 대한 태도는 아르카지나처럼 매우 속물적이다. 연극에 대해서나 삶에 대해서나 별다른 고민 없이, 그저 아르카지나나 트리고린처럼 모스크바로 가서 "유명한" 예술가가 되고 싶은 꿈을 지니고 있다. 그런 그녀에게 트레플레프의 극중극은 어렵고 따분할 따름이다. 실제로 2막에서 마샤가 트레플레프의 연극을 다시 한 번 읊어달라고 부탁하자 니나는 "듣고 싶으세요? 그 희곡은 너무 재미없어요!"하고 단번에 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1~3막과 4막 사이,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여배우가 되어서 돌아온 니나는 예전의 그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토록 원하던 여배우가 되었으나 니나의 모습은 화려하기는커녕, 초라하기 짝이 없다. 사랑의 실패와 실연의 아픔을 겪고, 지방 극단을 전전하는 3류 배우가 되어 돌아온 그녀는 1막에서 보여주었던 맑고 반짝이는 모습 대신, 삶에 지치고 피로에 찌든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외적으로 늙고 초라해진 니나의 내면은 오히려 단단하고 깊어져 있다. "난 배우에요"하고 트레플레프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니나의 단호한 말에는 1막에서 막연하게 동경했던 '배우'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술가로서의 신념과 자부심이 묻어난다.
이러한 니나의 변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치가 바로 극중극이다. 〈갈매기〉에는 극중극이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1막에서 중단되었던 트레플레프와 니나의 공연이고, 다른 하나는 4막에서 트레플레프를 찾아온 니나가 그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다시 읊조리는 독백이다. "사람들, 사자들, 독수리, 뇌조들, 뿔 달린 사슴들, 거위, 거미, 물속에 살던 말 없는 물고기들, 불가사리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물들, 한 마디로 모든 생명, 모든 생명, 모든 생명들이 슬픈 순환을 마치고 사라져갔노라…" 1막에서 들려주었던 극중극과 똑같은 대사이지만, 4막에서 니나가 다시 읊조리는 극중극의 대사는 1막에서와는 전혀 다른 무게와 울림을 가지고 다가온다. 인생의 모든 실패와 고통을 경험한 뒤 돌아온 한 성숙한 배우가 그 모든 인생의 무게를 담아 읊조리는 담담한 대사는 어떤 구구절절한 설명보다도 절절한 이야기로 느껴지는 것이다.
이처럼 〈갈매기〉에서 니나의 극중극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 삽입된 연극이 아니라,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다. 특히 4막 마지막 부분에서 니나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극중극은 '삶'과 '연극'이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젊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잔인한 현실과 세파 속에서 결국 시들고 망가져버린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연극의 측면에서 보면 1막에서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짜 연기를 보여주던 배우가 이제 비로소 살아있는 진짜 연기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니나가 트레플레프 앞에서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하면서 다시 극중극의 대사를 읊조릴 때, 바로 옆방에서는 아르카지나와 트리고린을 비롯한 마을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로또 게임을 즐기고 있다. 한쪽 방에서는 돈을 걸고 게임을 즐기고 있는 동안, 다른 한쪽 방에서는 무명의 배우가 실패한 작가 앞에서 슬프고 아름다운 극중극을 읊고 있다. 이 선명한 대비를 통해 체홉은 다시 한 번, 진정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껍질뿐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다.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역사와 오페라
고대 로마를 다룬 오페라

로마의 옛 유적지

서구 문명의 뿌리가 고대 그리스라고 하지만 그리스는 유럽 전반을 커버하지는 못했다. 그리스 반도를 제외하면 유럽의 변방인 현재의 루마니아 남부와 터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 북아프리카가 주무대다. 반면 그리스를 정복한 고대 로마는 서유럽 전역과 러시아를 제외한 동유럽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문화를 퍼뜨렸다.

기독교가 순식간에 유럽의 지배적인 종교로 자리 잡은 것도 로마가 국교로 삼았기 때문이며, 그리스 신화도 로마 신화로 바뀐 채 전승되었다.

로마가 건국된 것은 기원 전 753년이라고 한다. 역사적 고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중해 패권을 차지한 후에 스스로 선포한 것이다. 기원전 500년경부터 공화정이 시작되었고, 기원전 27년에 제국으로 바뀌었다. 몰락 과정을 보면 기원 후 395년 동서 로마가 분할되었고,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으며, 콘스탄티노플을 수도로 한 동로마 제국(또는 비잔티움 제국)은 1,000년을 더 버티다가 1473년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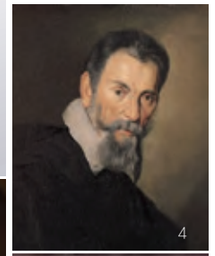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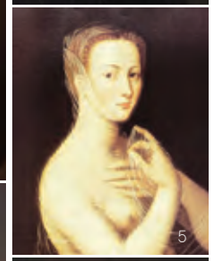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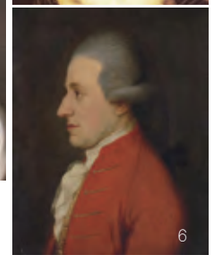
로마 역사는 로마 신화와 더불어 18세기까지 오페라의 중요한 소재였다. 19세기 이후에는 멜로드라마가 오페라의 주류로 등극하면서, 로마 신화는 물론 로마 역사도 오페라에서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이번 호에 소개하는 오페라는 18세기까지의 작품들이다.

헨델의 〈줄리오 체자레〉

공화정 시기의 로마를 대표하는 인물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일 것이다. 카이사르 직전의 로마 실권자는 공동집정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였다. 군인인 폼페이우스는 에스파냐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고 로마의 오랜 적수인 파르티아를 물리쳤다. 대부호 출신인 크라수스는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일으킨 노예반란을 진압했다. 카이사르는 두 사람 밑에서 시작했으나 에스파냐 총독을 마치고 기원전 60년 로마로 복귀한 시점에는 세력이 워낙 커져서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권력을 나누는 '제1차 삼두정치'에 합의한다. 지금의 프랑스인 갈리아 총독이 되어 켈트족을 물리친 것은 그 다음이다. 크라수스가 파르티아와의 싸움에서 전사하자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만 남았다. 그런데 원로원이 폼페이우스의 편을 들어 카이사르의 군대를 해산하고 복귀할 것을 명령한다. 이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주둔군을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 이탈리아로 진군한다. 카이사르를 이길 자신이 없었던 폼페이우스는 그리스로 달아나 버렸고, 카이사르가 뒤쫓자 근거지의 하나였던 이집트로 도망친다. 그러나 카이사르를 두려워한 이집트 국왕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폼페이우스를 암살하고 그 머리를 카이사르에게 바친다. 프톨레마이오스의 누이가 클레오파트라인데, 이집트의 통치권을 놓고 남매가 다투고 있었다. 이에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에게 접근하여 그녀에게 흠뻑 빠진 카이사르의 힘을 이용하려고 한다.

독일 출신이지만 이탈리아 오페라 세리아의 기법에 통달

네로와 그의 모후 아그리피나

1_카이사르 당시에 제작된 두상
2_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
3 초연당시 클레오파트라를 부른 쿠초니
4_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
5_포파에이
6_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한 후 런던에서 활동한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의 〈줄리오 체자레〉(1724)는 이집트에 온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를 다룬 오페라다. 줄리오 체자레란 라틴어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이탈리아어로 표기한 것이다. 물론 체자레는 오페라 소재로 인기가 높았으므로 헨델 이전에도 여러 오페라가 존재했고, 헨델의 〈줄리오 체자레〉 역시 1677년에 나온 옛 대본을 헨델의 중요한 조력자인 니콜라 프란체스코 하임이 수정한 대본을 사용했다.

오페라는 폼페오(폼페이우스의 이탈리아어 표기)를 추격하여 이집트에 도착한 줄리오 체자레를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체자레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라고 외친다. 사실은 파르티아 군대를 격파한 후 원로원에 보낸 승전보에 쓴 세 마디 글인데 워낙 유명하기에 이집트 도착 장면에 이용한 것이다. 폼페오는 오페라에 직접 등장하지 않고 체자레 앞에 그 목이 바쳐진다. 대신 남편을 잃은 폼페오의 아내 코르넬리아와 그 아들 세스토가 중요 등장인물이다. 한편 동생 프톨레오와 경쟁 중인 클레오파트라는 시녀로 위장하여 체자레에게 접근하고 단번에 그의 사랑을 얻는다. 다른 한편으론 프톨레오가 코르넬리아의 미모에 빠져 부하장군 아킬레와 경쟁하는 사이가 된다. 결과는 가장 용맹한 장군의 충성을 잃는 것이다. 프톨레오의 암살 기도를 클레오파트라 덕분에 간신히 면한 체자레는 일단 몸을 피한다. 클레오파트라는 프톨레오에게 붙잡히지만 전열을 정비한 체자레에 의해 구출된다. 세스토는 부친의 원수이자 모친을 탐하는 프톨레오를 죽인다. 코르넬리아는 프톨레오에게서 빼앗은 왕관을 체자레에게 주고, 체자레는 그것을 클레오파트라에게 전한다.

몬테베르디의 〈포페아의 대관〉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로부터 사실상의 로마 제국이 시작된다. 황제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네로다. 네로는 열여섯의 나이로 즉위한 이래 영민한 정치를 펼치기도 했지만 어른이 되자 포악해졌다. 자신을 황제로 만든 모친 아그리피나가 정치에 간섭하자 죽여 버렸고, 최고의 현자이던 스승 세네카에게도 죽음을 내렸다. 로마 시가지의 70%가 잿더미로 변한 대화재 당시에는 노래를 부르며 즐기고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아 집단학살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네로의 여성편력으로는 옥타비아 황비를 내치고 부하 오토의 아내였던 포파에아 사비나를 맞아들인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로마의 대표적 요부 포파에아에 대해 타키투스 연대기는 "겉으로는 소박하고 겸손한 척 했으나 실제로는 무척 자유분방했다. 주위의 평판에 개의치 않았고, 연애를 하되 사랑에 빠지지 않았으며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성적 매력을 이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4세에 근위대장과 첫 결혼을 했고, 네로의 친구인 연하남 오토와 두 번째 결혼을, 네로 황제는 세 번째 결혼 상대였다. 약 1년 만에 네로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의도적인 살해인지 우발적 사고인지 명확하지 않다.

포파에아가 남편을 버리고 네로와 결혼하는 과정을 다룬 오페라가 바흐 이전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로 불리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포페아의 대관〉(1642)이다. 포페아는 포파에아의 이탈리아어 표기다. 역사적으로는 나중 이야기지만 오페라 역사에서는 〈줄리오 체자레〉보다 82년이나 앞선 작품일 뿐만 아니라 오페라 초창기의 가장 위대한 걸작이다. 베네치아에 역사상 최초의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 것에 자극받은 몬테베르디가 75세의 노구를 이끌고 완성한 점도 놀랍다. 또한 오페라 세리아 양식이 확립되기 이전이라 어느 오페라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독특한 뉘앙스를 담고 있다. 우선 드라마틱하면서 코믹하고, 그 무엇보다도 에로틱한 오페라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4세기 전에 이런 농염한 표현이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로와 포페아의 침실 대사는 은밀하고 자극적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선악을 구분하는 도덕극의 한계를 완전 탈피했다는 점이다. 포페아는 명백한 악녀임에도

네로를 유혹하는 포페아

왕비 대관식으로 행복하게 극을 마무리한다. 게다가 마지막에 네로와 부르는 사랑과 행복의 이중창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의 하나라 일컬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주역은 물론 조역급 캐릭터까지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옥타비아 황후와 세네카는 비극적으로, 포페아의 하녀는 익살스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물론 역사적 사실과 오페라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다. 오타비아는 외진 섬으로 추방되었다가 결국 자살을 강요받는다. 오페라 내내 동정의 대상인 포페아의 전남편 오토는 추방당한 것이 아니라 그간의 공적을 인정받아 지금의 포르투갈 총독에 임명되었다. 그는 네로의 다음 황제 갈바를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했으나 내란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하자 즉위 3개월 만에 자결했다.

모차르트의 로마 시리즈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도 로마 역사를 다룬 오페라를 몇 편 썼다. 모차르트의 주분야가 오페라 부파, 즉 이탈리아 희가극으로 알려져 있지만 성인이 되기 이전에는 바로크 풍의 오페라 세리아가 더 인기 높은 장르였기 때문이다.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1770), 〈스키피오네의 꿈〉(1772), 〈루치오 실라〉(1772), 〈티토 황제의 자비〉(1791) 이렇게 네 편이 로마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앞의 세 편은 모차르트가 14세부터 16세의 무척 어린 나이에 쓴 것이다. 따라서 모차르트 오페라 중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을만한 시기의 작품이 아니지만 〈마술피리〉와 더불어 생의 마지막 시기에 쓴 〈티토 황제의 자비〉만큼은 자주 공연되지는 않아도 평가가 좋다. 〈폰토의 왕 미트리다테〉는 지금의 터키에 위치한 나라로 로마에 저항한 기원전 1세기의 폰투스 왕국이 배경이다. 주인공들은 로마 사람이 아닌 것이다. 〈스키피오네의 꿈〉의 주인공은 기원전 2세기에 카르타고를 멸망시킨 로마의 명장 이야기다. 〈루치오 실라〉는 그보다 얼마 후에 독재적 권력을 휘둘렀던 집정관 이야기다. 〈티토 황제의 자비〉는 잠시 황제를 지냈을 뿐인 티투스 이야기인데, 당대 최고의 대본작가였던 메타스타시오가 쓴 극답게 바로크 오페라 세리아의 장중한 분위기와 모차르트 특유의 정교한 음악이 압권이다.

테마가 있는 음악 역사와 오페라 고대 로마를 다룬 오페라

오페라 피날레의 클레오파트라와 체자체

티토 황제의 자비

모차르트의 오페라 세리아는 몬테베르디보다 헨델에 더 많이 닮아있다. 몬테베르디는 17세기 전반에 속하는 인물이고, 헨델은 18세기 전반에 속하는 인물이어서 적어도 오페라에 관한 한 헨델의 작품이 모차르트에게 모범 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영웅적 남성 역으로 2~3명의 카스트라토가 출연하고, 그 연인 역으로 2명의 소프라노가 필요하며, 악당으로는 베이스를 쓰는 것이 당대의 관습이었다. 등장인물간의 구도가 작품마다 비슷하고, 지나치게 가수 중심이란 것이 바로크 오페라의 약점이다.

글 **유형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1995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칼럼을 썼고 현재는 무지크바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노년기 정신건강과 음악의 치료적 효과

내가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이해를 못하게 된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시 배우고 있다.
나는 문제의 중심에 다가가려 하지만,
나의 의지가 약해지고 나의 생각은 흐트러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용서에 관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 *Don Henley*

노년기의 정신건강

인간이 갖는 다양한 질병들은 육체의 결함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 측면의 불균형에 의해서도 기인된다는 사실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사람들은 보다 행복한 삶을 위해 균형 잡힌 심신을 유지하는데 필사적인 노력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인간은 신체적 존재이자 정신적 존재이며 동시에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와 환경과의 다양한 접촉으로 이들 간의 균형적인 상호관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즉 건강이란 개체가 정신과 신체의 균형과 조화를 고려하여 원만한 사회적 관계교류가 이뤄지는 연속선상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이다. Parsons(1972)는 '건강은 인간이 사회에 살면서 그들의 역할과 과업을 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 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은 건강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역할과 이에 상응하는 과업구조, 성별, 나이, 교육수준 등과 같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태와 관계를 갖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건강한 삶은 자기 자신을 바로 자각하고 타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능률적으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기쁨을 주며 가정과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전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점차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신체와 정신의 기능이 퇴화하게 되고 이에 따라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면서 노년기에 이르면 건강의 유지가 상당히 어렵게 된다. 노년기에는 특히 여러 가지 노인성 정신장애가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 정신장애는 처음부터 노년기에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중년기에 생산성대 침체기의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신장애에는 일반적으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신경증적 장애, 인지장애, 공포장애, 건강염려증, 노인성 정신병, 치매 등이 있다. 생리적 정신노화로는 단순한 건망증, 기억장애

노년기 정신건강

가 있고 병적 정신노화인 치매, 또는 현저한 기능장애나 인격 장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자살과 약물로 인한 정신증상도 흔하다. 노년기 정신장애의 유발인자로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 자발성의 상실, 친구와 친지의 죽음, 신체적 건강약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압박, 인지기능의 저하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성 정신장애로는 뇌동맥경화증(뇌경색)과 노인성 정신병 같은 만성 뇌증후군과 노인성 치매가 가장 많다. 치매[1]에는 뇌세포들이 죽어가는 퇴행성 치매(알츠하이머[2]치매)와 뇌혈관 질환(뇌졸중)에 의한 혈관성 치매 그리고 이 양자를 함께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혈관성 치매는 조기치료로 예방이 가능하나 퇴행성 치매는 아직 원인과 치료법이 불분명하고 치료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연구에 의해 점차 그 원인과 치료방법이 하나 둘씩 밝혀지고 있으며 신약 개발과 의학연구와 다양한 대체의학치료법도 진전을 보이고 있다. 서양에서는 퇴행성 치매가 더 많은 반면 동양에서는 혈관성 치매가 많다고 조사되고 있으며 성별 발생 양상을 보면 퇴행성 치매는 여자에게 더 높고 혈관성치매는 남자에게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년기에 나타나는 신체형장애는 내과적 질환으로 노인의 80%이상이 관절염이나 고혈압 등 심혈관

1) 하늘다리 52호 '음악치료컬럼' 참조
2) 알츠하이머란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 알로이스 알츠하이머(Alois Alzheimer)가 치매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뇌에서 특정적인 신경병리적 소견을 발견한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것이다.

계 질환을 갖고 있으며 이중에 만성 질병을 한 가지 이상 호소한다. 75세 이상 노인 중 20%는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건강염려증으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합당한 신체적 검사로 죽을병은 아니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위험부담이 큰 진단과정은 피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노인성 정신장애의 또 하나 흔한 것 중 우울증 같은 정동장애(affective disorder)를 들 수 있는데, 단순한 우울증상도 노인의 약15%정도가 나타난다. 노령 그 자체가 우울증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사별하여 혼자되거나 만성적인 내과질환을 앓게 될 때 우울증이 발생되기 쉽고, 노년기에 처음으로 발병한 우울증은 재발률이 높다는 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한다. 노년기 우울증의 흔한 징후와 증상은 에너지와 집중력의 저하, 이른 새벽이나 밤중에 자주 깨는 수면장애, 식욕 저하, 체중 감소나 신체적증상 등이다. 양극성 장애는 흔히 중장년기에 발병하여 약1%정도는 평생 지속되며, 노년기에 조증삽화로 나타날 수 있다. 65세 이후에 조증이 처음 나타나면 이는 신체적 또는 기질적 원인으로 보기 쉽고 복용하는 약물의 부작용이나 초기 치매 증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신분열병은 65세 이후에 처음으로 발병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편적으로 45세 이후에 발생된 후기 발병 정신분열증(late-onset schizophrenia)을 말한다. 이는 여성에 흔하고 망상형이 많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65세가 되면 20%정도는 심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80%에서 심한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러 가지 장애를 보인다. 잔류형 정신분열증(residual schizophrenia)은 약30%로 감정둔마, 사회적 위축, 편향된 행동, 비논리적인 사고 등을 나타내며, 망상과 환각은 흔하지 않다. 대개는 장기간 입원하게 되고, 항정신병 약물에 반응이 좋지만 재발이 흔하므로 심리유지요법을 필요로 하며 통상용량보다 적게 쓰는 것이 노인에게 합당하다. 망상장애의 발병연령은 대개 40~55세이지만 노년기에도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다. 감시당하고, 쫓기고, 독살 당한다는 피해망상이 가장 흔하며, 상상의 박해자에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고, 자신이 죽을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신체망상도 흔하다. 망상장애는 배우자의 죽음, 실직, 은퇴, 사회적 고립, 경제적인 곤란, 회복하기 어려운 내과적 질환, 시력장애, 청각장애 등의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일어나기 쉽다. 망상은 알츠하이머, 알코올 장애, 정신분열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처방된 약물이나 뇌종양의 초기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신치료와 약물치료 병합으로 예후는 좋은 편이다. 불안장애는 공황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급성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자극장애가 65세 이후 인구의 약 5.5%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공포장애는 노인의 4-8%에서 나타나고, 징후와 증상은 젊은 사람 보다 덜 심하다. 외상 후 자극장애는 노인들의 신체적인 쇠약 때문에 젊은 사람에서 보다 훨씬 심각하고, 자율신경계의 위약성 때문에 스트레스 후에 불안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인이 되면 완전벽, 엄격함, 인색함 등이 더 강화되는데, 이것이 병으로 되면 정리정돈, 의식화, 동일성에 대한 주문이 더 심해진다. 사물을 계속 점검하고, 융통성이 없고, 고집이 강해진다. 끝으로 알코올이나 약물의존 등에 따른 장애를 들 수 있다. 약 10 %정도 노인이 술이나 그밖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마약(narcotics)에 중독되어 있고, 니코틴이나 카페인, 진통제, 설사제 등도 흔히 남용된다. 알코올의존(alcohol dependence)노인은 젊어서부터 과음을 해온 사람들로 대개 간 질환에 이환되어 있다. 이혼, 사별 및 독신인 남자 경우가 많으며, 범죄에 따른 전과기록이 있고, 집이 없고 가난한 방랑자가 많으며 베르니케(Wernicke)병이나 코르사코프(Korsakoff)증후군을 보일 때가 많다. 노인들은 만성적 불안을 경감시키거나 수면장애 때문에 신경안정제를 남용할 때가 많고, 갑작스런 섬망은 알코올금단에 의한 경우가 흔하다. 노인의 만성 위장장애는 알코올남용과 관계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 외 노년기의 수면장애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불면증, 낮에 졸리는 문제, 낮잠, 수면제 과다복용 등이 흔하다. 노년기 수면장애는 정신장애, 내과적 질환, 사회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올 수 있다. 별 할일이 없는 노인은 일찍 잠들고 밤중에 깨는 문제가 생기며, 술이 잠을 방해하고 폐쇄성 수면 무호흡(obstructive sleep apnea)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수면제 복용 후 인지장애, 행동장애, 정신운동장애 특히 선행성 건망증(anterograde amnesia)과 같은 기억장애, 진정효과가 남아있는지 또는 반응성 불면증(rebound insomnia)이 있는지, 낮에 위축되어 있는지, 비틀거리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존중과 타인존중을 할 줄 아는 인격에 대한 자세이며 다음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지닌 장점과 한계에 대한 이해와 수용에 대한 자세이다. 또한 모든 행동에는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자세이며,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동기를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라 하겠다.

음악과 함께 노년기를

인간이 음악과 접촉하면 심신에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쉬운 예로, 음악에 의해서 심장의 고동이나 호흡 상태에 변화가 생기고 자발적으로 신체의 움직임이 유발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음악의 자극은 마치 정신이 감전 된 것 같이 다양한 상상과 시공을 넘나드는 반사작용들을 불러일으킨다. 레스토랑에서 식사 중에 흐르는 소위 선별된 '디너뮤직'들은 듣는 것만으로도 신체 위액의 분비가 촉진되어 위의 운동이 활발하게 도와주기도 한다. 또한 음악 감상을 통해 심신의 이완을 도와 피로를 쉽게 풀어주는 수용적 음악치료방법[3]도 수많은 과학적 근거로 음악의 치료적 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최근 어떤 실험에 의하면 피 실험자에게 손목이나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을 지속하도록 하고 이후 손이 피로해져서 움직이지 않게 될 때쯤에 음악을 들려주면 일시적으로 의지와 관계없이 손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신경학적 연구결과를 보고하기도 하였다. 즉 음악의 자극은 신체의 다른 감각의 상호작용과 가소성이 활발하게 지속된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음악은 감정, 연상, 정신운동과 같은 심리적 측면과 내분비, 순환, 호흡, 혈압과 같은 생리적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음악은 인간의 양쪽 대뇌반구의 기능을 서로 교차하고 교류시키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즉 좌측반구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와 관계되기 때문에 산술적 기능에 영향을 주고

3) 하늘다리 41~45호 '음악치료컬럼' 참조

노인합창단

우측 반구는 지각, 언어기능, 행동 전반에 영향을 준다. 뇌의 시상(thalamus)은 감정, 감각, 느낌의 주요 교대 장소이다. 음악을 듣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그 자극이 뇌의 시상으로 돌아오고 그 반사 회전은 시상이 음악적 감각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각성시키기 때문에 음악과 시상은 하나의 회로가 되는 셈이다. 생리적으로 음악은 호흡수, 혈압, 맥박과 같은 심장 혈관계에 변화를 주고 자극에 대한 감수성 역치는 낮추며 근육의 피로시기를 늦추어 준다. 반대로 음악은 심신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끊임 없이 빠른 템포와 강한 비트, 불협화음, 특이한 음색 등을 가진 음악은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자극하여 아드레날린의 양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는 심한 긴장 상태의 연속, 면역 작용의 저하, 소화기능의 장애와 극도의 쇠약 증세로 이르게 한다. 심장의 박동보다 조금 느린 빠르기(T=65~70)로 70데시벨(Db)을 넘지 않는 음량과 불협화음과 협화음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서 선율의 흐름을 예측가능한 정도로 하여 다양한 음색을 포함한 음악이라면 신체와 정신의 건강에 대단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바흐, 하이든, 비발디, 파헬벨 등의 바로크음악과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의 초기 작품을 포함한 고전주의 음악들은 노인뿐만 아니라 생활스트레스에 심히 노출된 현대인들에게도 심신케어에 좋은 치료적 음악으로 제공 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노인건강문제는 질병의 회복과 더불어 삶의 질을 개선하고 향상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문화적인 복지 증대로 그 해결안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안정되고 교육수준도 높아질 것이며, 앞으로 의학연구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노년기는 점진적으로 연장되므로 자신의 노년을 보람되게 보내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고차원적이고 부가적인 문화, 교육환경, 여가활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적인 보편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노인의 생활전체가 여가활동으로 넓혀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가활동을 개인의 욕구충족과 소비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불균형적이고 제한된 삶이 도래될 것이다. 따라서 사회 환원 및 이타적인 배려의 차원에서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역할을 발견하여 주어진 삶 속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치 있는 여가생활을 염두에 두는 것은 노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노년기의 삶에 보람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유용한 여가생활의 선택은 바로 개인에게 달려 있고 선택의 여하에 따라 새로운 노인문화도 창조될 것이다.

음악은 노년기 삶의 정신과 신체활동에 자발적인 관심을 촉발하고 생활의욕과 노쇠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익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효과적으로 스트레스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며 노년기 정신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신체적, 정신적, 대인관계, 자존감, 영적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노인들에게 음악활동을 통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역할수행으로 고통을 완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음악은 음과 리듬에 의해 표현된 것에 반응하는 힘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고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 속에 음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체보다도 심신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음악은 풍요로운 노후의 삶을 보내기 위해서 젊을 때부터 틈틈이 취미생활과 여가로 즐길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한 노인도 있겠지만 훈련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즉 음악성은 심리학의 용어를 빌어서 말하면 듣는 일에 대한 감각과 지각 및 청각이미지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독특한 조직이다. 음악교육은 청각교육, 즉 듣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이라고도 할 수 있다. 오랫동안 교육과 학습이 필요한 분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의식을 주장해보는 것이다. 가장 쉽게 심리적, 생리적 영향을 미치는 도구니까 말이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충분한 경제적 자원과 풍부한 문화여가활동 경험을 갖고 노년기에 진입할 것이기 때문에 은퇴 후에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 생애경험을 기초로 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자신의 여가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음악활동을 즐기는 것은 노년기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이다. 음악활동은 음악놀이, 음악집단 동아리 활동, 연주 자원봉사활동,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으며, 자기 개발적인 프로그램으로 합창단, 합주단, 우리음악연구와 보급, 노인음악교육, 민족음악문화 전수 등으로 여가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로 활기찬 노년기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다. 여러 형태의 음악활동 즉, 감상, 노래, 연주, 동작, 독보, 창의성 등은 사람의 행동과 심리상태에 여러 가지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리듬이 강한 음악을 들으면 박자에 맞춰 발을 까딱거리기도 하고,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며, 부드러운 선율의 서정적인 느린 음악은 대체적으로 긴장이완의 효과를 가져와서 듣는 사람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한다. 또한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합창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사이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주기도 한다. 노인을 위한 여러 음악적 활동은 노인들에게 모일 수 있는 사회관계의 기본적인 교류의 장으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노인이 자기보다 덜 건강한 노인을 도와주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봉사는 사람을 늙지 않게 하며 생기 있고 활기찬 삶이 되게 한다. 배우고 훈련한 자신들의 재주를 소위 썩히지 않고 이타적인 사고로 봉사하며 나누는 생활 습관은 노년기의 삶을 더욱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할 것이다.

나이를 먹어가는 과정을 지연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심신이 악화되는 것을 재촉하는 부정적인 사고나 태도를 예방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안감이나 무의미하거나 무기력한 사고, 지난 과오에 대한 후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의 현실적인 태도를 음악을 통해 자극 하고 승화시키면 노년기 문제를 예방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음악활동을 통해 친밀해진 집단 성원들은 서로 여가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상의하고 토론하거나, 죽음에 대한 주제를 놓고 서로의 의견을 나누며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심리적인 우울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로널드 블리스 하코트(Ronald Blyth Harcour)는 노년을 '아직 젊은 정신과 늙은 육체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모순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 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당황하고 노령의 상황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된다. 그러나 실존적인 삶을 통해 이타적으로 노후를 잘 준비해온 사람들은 젊었을 때의 열정 그대로 유지하며 젊은이들이 갖지 못한 인생에 대한 통찰을 갖고 차원 높은 삶을 살아간다. 음악은 이런 과정에서 심리적, 정신적 원조를 제공함으로써 주체적 자아실현의 욕구를 실현케 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삶과 의미 있는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와 줄 것이다.

레크레이션

글 **하준성**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음악치료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Dipl. MT)를 받았다. 독일 공인음악치료사로 현재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으며,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 심리치료학과 음악치료임상교수와 'HJS 음악치료발달연구소' 소장, '음악힐링아이' 대표를 맡고 있다.

Culture 心터

56 新 문화로드 | 공존, 그리고 안산문화광장
60 문화多樂 | '안녕?!오케스트라', 리차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협연
62 ASCF 히치하이커 | 문화, 융합을 말하다
66 이야기가 있는 문화 | 단원의 풍경

Culture Triangle of ANSAN

공존, 그리고 안산문화광장

안산을 대표하는 또 다른 브랜드인 안산문화광장, 다양한 문화가 응집과 팽창의 순환을 거듭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안산의 보물 중 하나다.
그러한 안산문화광장을 찾았다. 새로운 문화가 움트는 봄을 고대하면서….

사진제공 : 안산시청 홍현선

안산문화재단이 문화와 예술의 도시, 안산을 만들어 나간다.
이에 〈新 문화로드〉를 3회에 걸쳐 연재한다. '新 문화로드'는 안산의 여러 지역 중 문화와 예술로 하나 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펼칠 수 있는 하드웨어적 인프라를 갖춘 명소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시, 안산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해 보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첫 번째로 안산문화광장을 소개하며, 이어서 중앙역 광장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정문 앞 광장을 찾아간다.

글 싣는 순서
01. 안산문화광장
02. 중앙역 광장
03.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정문 앞 광장

안산 문화 르네상스의 중심에 서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안산문화광장. 안산만의 문화 에너지가 응집된 거리광장이다. 꽃피는 봄, 그곳에서 피어날 역동적 문화생성을 고대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안산시 남북중심축에 자리 잡고 있으며 폭56m, 길이 1.16㎞, 면적 49,572㎡로 서울 광화문 광장의 2.6배가 넘는 규모를 자랑한다.
한편 주변의 크고 작은 상가들과 어우러져 경제적 시너지도 꽤나 매력적이다. 대규모 영화관과 쇼핑센터는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로 가득한 주변 상권에서 나만의 핫플레이스를 찾는 것도 쏠쏠한 재미를 선사할 것이다. 이는 잘 정비된 교통인프라가 한몫하고 있기 때문. 덕분에 주변 도시에서의 접근성 또한 원활하다.
날이 좋다. 아직은 겨울의 시샘이 극성이지만 그런대로 안산문화광장을 즐기기엔 충분하다. 두꺼운 겉옷을 벗어던지고 카메라 하나 달랑 멘 채 광장 맨 끝으로 향했다. 그 지점에서 반대편 지점을 바라보는 느낌이 자못 궁금했기 때문이다. 길다, 그리고 넓다. 이러한 장소에서 만들어질 문화의 다양함을 마음에 그려본다. 사람, 공간, 즐길거리, 그리고 다시 행복. 안산의 새로운 문화르네상스를 이끌어낼 공간임이 명백하다.

광장에서 만난 일상의 풍경

답답한 도심에서 이러한 공간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네 현실이다. 광장하면 우리는 광화문광장을 떠올리곤 하지만 안산문화광장이 가진 잠재력에는 미치

지 못할 듯하다. 그만큼 만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가 무궁무진하며, 빈 잔이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듯 앞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지금의 상태가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진다.
안산문화광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빛과 주변 건축물들이 만들어 내는 다이내믹한 변화 속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으로 가득했다.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눈 맞추며 걷는 엄마와, 무엇이 그리도 좋은지 꺄르르 웃음소리 끊이지 않고 삼삼오오 짝지어 거니는 소녀들, 가만히 잡은 손 놓지 않고 벤치에 앉아 오후의 넉넉한 햇살을 즐기는 노부부까지…….
일상의 풍경들이 흥미롭고 다채롭다. 광장 중앙부에 위치한 썬큰광장 스탠드에 풀썩 주저앉아 만난 시민들의 모습이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 덕에 이러한 여유도 부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이렇게 가만히 타인들의 일상을 관찰하기는 오랜만이다. 그야 일에 치이고 삶에 치이다 보니 그러했겠지만 가끔은 이렇게 일상의 여유를 만나볼 필요가 충분해 보인다.

도심 속 꿈틀거리는 문화인큐베이터

안산문화광장은 Eco(자연), Culture(문화), History(역사) 이렇게 세 개의 커다란 테마를 중심으로 숲의광장, 폭포광장, 전망대광장, 썬큰광장, 물의광장에서 등으로 나눠진다. 하지만 문화라는 개념이 그렇듯 경계 없이 노닐기 좋다. 한적한 주말이면 아이들과 함께 물의광장 바닥분수를 즐기면 될 것이고, 녹지의 푸름 안에서 힐링을 경험코자 하면 안산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숲의광장에서 시작되는 또 다른 길을 경험하면 되겠다.
이밖에도 다양한 쉼터와 휴식공간은 물론 조형물들까지 준비되어 있어 도심 속 여유로움을 즐기기에 그만이다.
어찌 보면 무(無)의 공간처럼 보여지는 안산문화광장, 그렇기에 유(有)를 창조할 수 있는 그 가능성 또한 상상 그 이상일 것이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문화인큐베이터로서 말이다. 그 예 중 하나가 다문화를 꽃피워 가는 지역적 특성을 들 수 있겠는데, 다문화라는 변화를 통해 필수적으로 겪어야 했던 문화적 충돌을 긍정적으로 재생산해 더 높은 문화적 이상을 실현하는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밖에 봄에 열리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부터 여름에 열리는 「여르미오축제」까지 대형축제들이 시민들의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매년 진화를 거듭하며 개최하는 등 소통과 교감의 장소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한 크고 작은 개인공연들이 끊임없이 열리면서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안산의 토속적 흥과 응축된 문화 에너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잠재력 있는 풍부하고 혁신적인 문화마당이 되길 바란다. 더불어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그것들을 통해 안산 시민들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새로운 문화공작소로서 그 역할을 다해주길 거듭 강조하고 싶다. 이 푸르른 봄 척박한 땅을 뚫고 싹트는 생명력처럼.

글 **노호성**

TIP

안산문화광장은
위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800번지 일원
광장규모 : 폭 56m, 길이 1,16km, 면적 49,572㎡(약 15,000평)
주요시설 : 관리동, 물의 광장, 썬큰광장, 숲의 광장,
전망대 광장, 폭포광장 등
문의·대관 : 031-481-0553 / 기타문의 : 031-481-0552

'안녕?!오케스트라', 리차드 용재 오닐 리사이틀 협연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인 안산 '안녕?!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이 비올리스트 리차드 용재 오닐과 협연을 펼쳤다.
2월 20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용재 오닐의 리사이틀 〈My Way〉에서 인데, 공연에 앞서 2월 18일 우리 재단에 방문, 사전리허설을 갖은 자리에서 그와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다.

Q 〈안녕?!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나요? 목적이 있으셨을 텐데요?

A 2012년에 MBC 방송국으로부터 제안을 받았습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해서 〈안녕?!오케스트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A 어린 친구들, 특히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작업한다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영광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참 맑고 순수했고 악기도 금세 배우더라고요. 〈안녕?!오케스트라〉 단원들이나 그 부모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알게 된 것 또한 정말 좋았습니다.

Q 이번 〈MY WAY〉 콘서트에 〈안녕?!오케스트라〉도 참여한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협주는 어떻게 기획하게 되었나요?

A 1년에 한번씩은 〈안녕?!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하려고 다짐했었습니다. 원래는 지난 크리스마스에 〈안녕?!오케스트라〉와 함께 콘서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함께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아쉽더라고요. 아이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요. 다행히 2016년 제 단독 리사이틀이 계획되어 있어, 이번 기회에 아이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싶어 무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Q 〈안녕?!, 오케스트라〉 활동이 작품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개인적으로 〈안녕?!오케스트라〉를 통해 제가 덕을 많이 봤습니다. 좋은 아이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배우는 게 많았거든요. 초등학생이던 아이가 자라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는 무척 감개무량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면서 음악을 접하고 우정을 키우고 그러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다 제게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의미들이 쌓이다 보면 보다 좋은 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Q 〈안녕?!오케스트라〉 아이들과 앞으로도 공연을 더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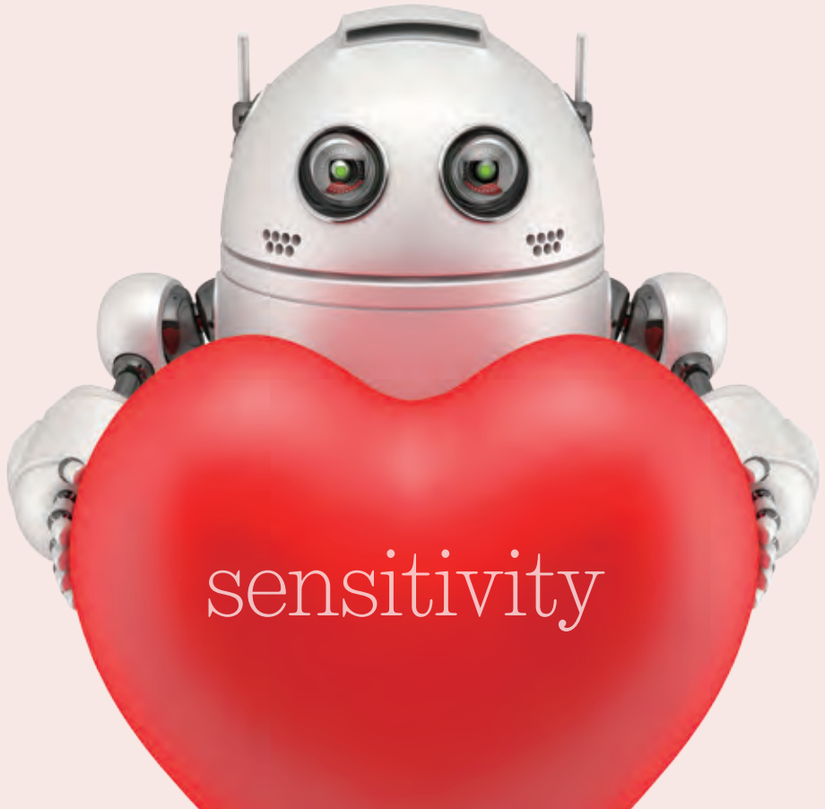
A 아이들과 언제나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안녕?!오케스트라〉와 아이들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오케스트라를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들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자신들이 얻은 소중한 경험 〈안녕?!오케스트라〉을 잘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주는 즐거움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해요. 그리고 〈안녕?!오케스트라〉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오케스트라인데도 오보에나 바순 외에는 악기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언제가 될지 기약할 수는 없지만 〈안녕?!오케스트라〉의 멋진 연주회를 다시 한 번 열어보고 싶습니다.

문화, 융합을 말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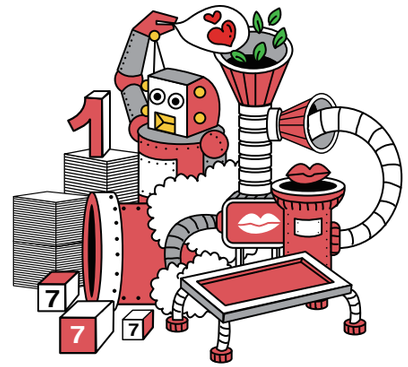
그 첫 번째 이야기

차가움, **감성**을 입다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다. 개인의 이야기가 콘텐츠가 되고, 그 콘텐츠를 지구 반대편 누구와도 공유가 가능하다.
문화예술계 또한 다르지 않다. 기술과의 접목은 물론
서로 다른 성격의 문화가 하나로 또는 여러 개로 다시 확장되기도 한다.



과연
로봇과 **컴퓨터**가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



문화예술과 기술의 평행선

서로 다른 영역으로 발전을 거듭하던 문화예술계와 첨단산업계가 서서히 교집합 되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 이는 서로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며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은 물론, 완전히 다른 콘텐츠로 발전을 거듭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로봇산업이라는 다분히 과학적인 분야와 문화예술의 융합이 대표적일 수 있겠다.
차가운 금속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한 엔지니어들과 과학자들의 노력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다. 이는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며 다양한 영화의 소재로도 다뤄져 왔었다. 이 같은 기술의 발전에 반기를 드는 이들도 분명 있지만 그 기술에 대한 인간의 기대감은 계속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문화예술과 접목하여 새로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로봇산업, 이 둘의 평행선적 발전은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이 같은 변화는 계속해서 실험되어지고 있다. 그 예로 지휘자로 나서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는 로봇이나, 뭉크의 '절규' 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등의 미술계 거장들의 화풍을 완벽히 그려내는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까지 그 영역 또한 무한하다.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

컴퓨터가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고 있는 현장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인간의 두뇌와 흡사한 인공지능을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심지어 인간과 두뇌경쟁을 펼치는 시대가 되었다는 뉴스 기사까지 나온다. 바로 바둑천재 이세돌과 컴퓨터와의 세기의 대결이 그것이다.

이 세기의 대결은 세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세돌을 상대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겐 '알파고'라는 이름까지 붙어져 있다. 이미 인간과 같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알파고는 세계적인 글로벌 IT기업 구글의 자회사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프로그램으로, 인간의 정보처리 방식을 그대로 모방한 형태다. 심지어 컴퓨터 스스로 판단하고 학습할 수도 있도록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적용해 만들어졌다.

이 같은 예는 예전에도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1997년,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이었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꺾었던 것. 하지만 바둑은 다소 다른 부분도 분명 있다. 이에 이세돌 기사의 우승을 조심스레 점치는 전문가들도 많아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발전에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 있는 것이 현실로서, '과연 로봇과 컴퓨터가 인간과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이는 아마도 미래 우리 후손들이 경험하고 만들 미래이니 더욱 조심스러워야하지 않을까? 더불어 인간의 삶을 위해 개발되어지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정이겠지만, 인간이 인공지능에 지지 않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본다.

문화예술과 기술의 시작, 그리고 또 다른 고민

사실 우리 인간이 문화예술과 기술의 영역을 넘나들며 다양한 이상을 현실화한 시기는 이미 오래전부터다. 실제 중세까지 예술가들은 당대의 최고 예술가이자 과학기술자들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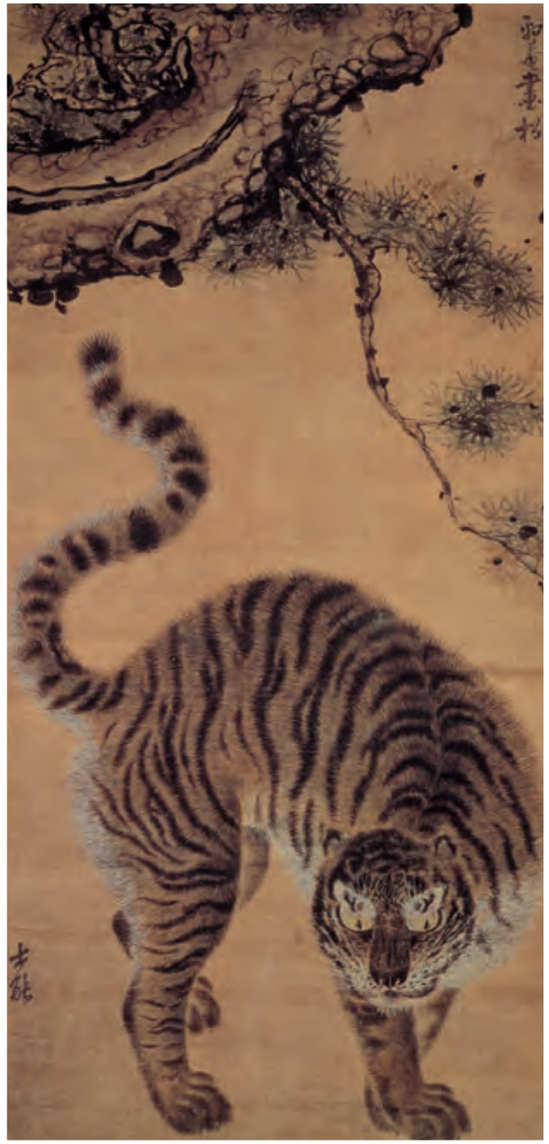
참고로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닉(technic)과 예술을 의미하는 아트(art)는 고대 그리스어 '테크네(techne)'에 그 어원을 두고 있다. 테크네는 본디 목수의 기술을 의미한는데, 이후 '잘 단련된 인간의 솜씨'라는 의미로 사용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로마로 전해지면서 라틴어인 '아르스(ars)'로 발전해 오늘의 아트(art)가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과 기계문명에 대한 예술가들의 비판적 언어도 부각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이 또한 예술의 범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로봇이라는 첨단 기술을 예술의 범주에서 고민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관계에 대해 심도 있고 성숙한 고민도 함께 동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고민도 가져본다. 기계문명에 대한 인간의 상상력을 인간적인 것과 기계적인 것으로 대비하면서 기술적 대상에 투영돼온 욕망, 공포, 그리고 희망을 보다 현명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찰을 통해서 말이다.

김홍도

檀園,
그저
한가로이
만
나
다

이번 만남은 친숙함 속 새로움을 만나기 위한 길이 되길 바란다. 물론 그저 그런 얘기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저 타박타박 걸으며 마주치는 안산의 풍경이 새롭게 각인되는 그러한 기분이 들기를 말이다. 화선(畫家),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를 그려보며.



송하맹호도

꽃피는 단원의 봄

살랑대는 봄바람 따라 나선 안산시 단원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대 화가이자 풍속화의 대가인 김홍도의 호에서 그 지명을 따왔다. 그만큼 김홍도와의 인연이 깊은 곳이다. 또 18세기 안산에는 '단원(檀園)'이라는 정원이 있었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박달나무와 소나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곳은 성호 이익 집안의 후손인 성고 이재덕(聲皐 李載德, 1711~1768)의 집 근처였다.

이곳에서 이재덕과 이철환(李嚞煥, 1722~1779)을 포함한 여주이씨 집안과 강세황, 권매 등 안산의 문인들이 모여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는 아회(雅會)를 가졌다. 아회에서 나온 시는『단원아집檀園雅集』에, 아회를 그린 그림은『섬사편剡社編』에 남겨져 있다.

이즈음 김홍도는 단원아회(檀園雅會)의 일원이며 시·서·화 예원의 삼절로 일컬음을 받고 있던 표암 강세황에게 화결(畵訣)을 배웠다고 표암유고 단원기에 기록되어 있다. 참고로 김홍도가 그린 「매해파행도 賣蟹婆行圖」에 적힌 강세황의 제발(題跋)을 통해 그 지역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잠시 짚고 넘어가 볼까한다.

"내가 일찍이 바닷가에 살 때, 아이를 업고 광주리를 인 십여 명의 젓갈 파는 아낙들이 무리를 지어 길을 가는 것을 보았다. 바닷가 하늘에 태양이 처음 떠오를 때 갈매기와 물새들이 다투어 날아오르고, 거칠고 차가운 풍물이 한 무리를 이룬 것이 또한 필묵의 밖에 있고, 바야흐로 도도히 흐르는 속세의 티끌 속에 있다. 이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보는 이로 하여금 돌아가고픈 생각이 일게 한다. (余嘗居海畔 慣見賣穠婆行徑 負孩戴筐 十數爲群 海天初旭 鷗鷺爭飛 一段荒寒風物 又在筆墨之外 方在滾滾城塵中 閱此 尤令人有歸歟之思 豹菴)"고 적혀있다. 이를 통해 안산과 단원 김홍도의 인연이 충분히 짐작된다. 하지만 잠시, 그가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역사적 고증도 중요하겠지만, 이처럼 좋은 봄날 우리의 자랑스러운 선조 김홍도가 남긴 족적을 따라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유유자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만히 가져본다.

1
3
2

1. 사슴과 동자
2. 단원아집
3. 시흥환어행렬도

檀園

문화예술의 발원지 안산, 그리고 단원미술관

안산에서 단원 김홍도를 추억하고 보다 깊게 접할 수 있는 장소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상록구 충장로에 위치한 단원미술관이 그곳. 상록구라는 명칭 또한 예사롭지 않은데, 이는 안산을 대표하는 문인인 심훈의 작품 '상록수'에서 따온 것이다. 이처럼 안산은 대한민국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고스란히 품어가고 있다.

한편 단원미술관은 김홍도 특유의 해학과 정감, 그리고 시대를 담은 미술관으로 지난 2014년 개관 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영인본관 외 제1~3전시관, 야외조각작품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근 성호기념관, 단원조각공원, 청소년수련관, 노적봉폭포공원, 둘레길 등과 함께 다양함을 즐길 수 있도록 One-way 문화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서 단원 김홍도의 향취를 깊게 느낄 수 있는 영인본관은 단원 김홍도 영인본 작품의 전시와 함께 작품해설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되고 있다. 또 야외조각작품로에는 다양한 야외조각 작품들이 설치돼 있고, 인근 노적봉폭포공원 등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예술공간을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다. 특히 안산시는 단원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해 열리는 '단원미술제'를 통해 가능성 있는 작가들을 발굴·지원하는 것은 물론 김홍도의 진본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니 미술제 참여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단, 매년 10월에 열리니 기간을 확인해보길 바란다.

이야기가 있는 문화 단원의 풍경

단원 김홍도가 그려낸 민초들의 삶

이쯤 되니 인간 김홍도가 궁금하다. 그리하여 여러 문헌을 통해 김홍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그 중 안산 출신의 문인인 신광하(申光河)는 김홍도의 성격을 조용하다고 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릴 때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 같다고 칭찬'했고, 오랫동안 김홍도를 곁에 두었던 강세황은 '김홍도의 성품과 예술적 기질이 보통의 사람들을 뛰어넘는다.'라고 했다. 한편 '단원기'라는 글을 통해서는 '단원의 사람됨은 용모가 아름답고 속에 품은 뜻이 맑다. 또 음악을 좋아해 매번 꽃피고 달 밝은 저녁 한두 곡을 연주해 스스로 즐겼다.'고 할 만큼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음을 암시했다.

이 같은 김홍도는 18세기 민초들의 풍속과 정서를 주로 그려냈다. 천재 화선으로 불렸던 그가 왜 그러한 풍경에 몰두했을까? 이는 다른 조선시대 화가와는 다른 행보였던 것이 분명한데, 대표적인 예가 그의 나이 51살인 1796년 봄에 그린 '병진년 화첩'이다. 이 화첩은 전부 20점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그림들에는 그 어떤 표식도 되어있지 않다. 단, 마지막 그림인 '옥순봉'에만 '병진년 봄에 그리다. 단원(丙辰春寫 檀園)'이라고 표기했는데, 충청도 일대를 하나로 집대성한 실경산수부터 화조화까지 그의 다양한 관심사가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다.

이 외에도 건장한 사내들의 역동적 모습이 인상적인 단원 풍속도첩 '씨름'은 우리에게 익숙함을 선사하며, 당대 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초들의 일상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20여 명의 구경꾼들과 씨름을 펼치는 두 사내의 표정이 저마다 제각각으로, 이 작품을 통해 김홍도의 재치와 풍자적 감성을 엿볼 수 있다는 것 또한 그림을 감상하는 재미요소니 잠시 그림에 초점을 맞춰 205여 년 전 장터의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길 바란다.

사진 **단원미술관 제공**

단원 김홍도(檀園 金弘道, 1745~1806 이후)

본관은 김해이며, 호는 단원(檀園)이다. 예로부터 안산은 문화적 토양이 매우 비옥했던 고장이었다. 18세기 영정조시대에 이곳은 학문과 예술의 향훈으로 가득차 있었다. 첨성촌(현재의 일동)에는 실학의 거목인 성호 이익이, 북쪽의 부곡동에는 시서화의 삼절로 추앙을 받던 표암 강세황이 계셨다.

김홍도는 7~8세부터 20여세까지 이곳 안산에서 표암 강세황(豹庵 姜世晃) 선생으로부터 그림과 글 수업을 받았으며 그의 천거로 도화서 화원이 되었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림에 천재적인 소질을 보여주었던 단원 김홍도는 후에 어진화가(御眞畵家)로 대성하여 그 명성을 전국에 떨쳤던 조선의 대표적인 화가로 이름이 드높다.

News

72 안산의 젊은 예술인 | 김진환
76 단원미술관 기획전시 | 귄터 그라스
80 문화예술 전시정보

음악감독·지휘자·비올리스트

3色의 예술인 김진환

2016년 〈하늘다리〉가 안산출신의 젊은 예술인들을 소개 한다. 지면에 소개되는 예술인들은 안산에서 태어났거나 학창시절을 안산에서 보낸, 현재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차세대 예술인들이다.
이들이 비록 아직은 미완의 이름 없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을 지라도...(김춘수 님의 시 '꽃' 中)', 안산문화재단의 〈하늘다리〉를 통해 우리 시, 안산을 빛내는 꽃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에 첫 번째 소개되는 안산 출신의 젊은 예술인은 현재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휘자이자 비올리스트 김진환 씨 이다.

뉴욕클래식심포니오케스트라(New York Classical Symphony Orchestra)에서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환 씨는 안산 중앙 초·중학교를 졸업한 안산출신이다.
비록 안산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현재도 여전히 가족 모두가 살고 있고, 어릴적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안산은 그에게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셈 이다.
그래서 인지 진환 씨는 "미국에 온지도 어느덧 5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늘 안산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환경과 문화를 사랑하는 도시의 분위기로 인해 제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 아주 큰 영향을 받은 거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진환 씨의 꿈이 처음부터 음악인은 아니었다. 하지만 또래의 아이들이 그랬듯 취미로 시작한 피아노가 예술고등학교 진학으로 이어졌고 예술가로서 오늘의 그를 만들어 냈다.

"피아노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요. 음악적 감수성은 아마도 그때부터 같이 키워질 수 있었던 것 같구요. 취미로 시작한 음악이 너무 좋았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실력도 늘었고 주위 분들의 권유로 서울예술고에 입학하게 되면서 제 삶 전체가 음악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환 씨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던 도중 도미, 메네스 음대 석사과정에 다니며 Merit Scholarship Award, Peter M. Gross Award를 수상했으며, 보스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는 등의 학업을 이어갔다.
수상경력으로는 알렉산더 부오노 국제 콩쿠르 1위를 비롯해 메이슨 그로소 체임버 콩쿠르, 서울 바로크 콩쿠르, 평론가 협회 콩쿠르, 포네 콩쿠르 등에서 모두 우승 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 연주가로서도 많은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는데, 대표적으로 서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세대학교 오케스트라 및 안산 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펼쳤으며, 경기도립국악단 정기 연주회에는 서양악기 연주자로는 최초로 초청돼 협연을 했다.
더불어 카네기 홀, 링컨 센터를 비롯해 미국과 한국에서 수차례 독주회를 진행했으며, 유엔 대표부 초청 연주, 뉴욕 총영사관 초청 세계 공연 리더의 밤 초청 연주, 뉴욕 한국 문화원 초청 연주, 대통령 뉴욕 방문 기념식 등에 초청 돼 연주했다.
여기에 젊은 예술인으로서의 그의 영역은 연주자를 뛰어넘어 지휘자와 음악감독으로도 넓혀가고 있다.
진환 씨는 이미 26세의 나이에 대종상 영화축제 최연소 음악감독으로 선정, 언론과 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으며 음악감독으로서의 데뷔에 성공하기도 했다.
지휘자로서는 뉴욕 카네기 아이작 스턴 홀, 카네기 와일 홀, 링컨 센터, 맨하탄 디 메나 센터, 애틀랜타 귀넷 컨벤션 센터, 버지니아의 힐튼 채플 등 뉴욕, 뉴저지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무대에서 활동 하고 있으며 뉴욕 라디오 코리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현재 솔리스트와 첼버 연주자 일뿐만 아니라 뉴욕 클래시컬 심포니 오케스트라 대표, 세종 국제 음악제 해외 사업 대표, Space in Art NY의 음악 감독 겸 C.E.O, 뉴욕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콩쿠르 심사위원, 이스트 코스트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그는 전문 연주가들로 구성된 뉴욕클래식심포니오케스트라도 꾸려가고 있는데, 출발 당시엔 운영자금 문제로 많이 힘이 들기도 했지만 현재는 연주에 대한 진정성과 실력 등을 인정받으며, 그 입지를 든든히 하고 있다.
그의 오케스트라는 이미 세계적인 연주자인 미리엄 프리드, K로버트 바티, 신윤 황, 미셸 김 등과 협연을 진행한 바 있으며, 진환 씨는 연주 활동 외에 커뮤니티 서비스와 교육적인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뉴욕 심포니 유스 오케스트라 운영도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뉴저지주의회와 상원의원 감사장과 미 연방 하원의원 상을 개인적으로 수상했으며, 오케스트라는 미국 대통령 봉사상 수여 기관으로 선정되는 기쁨을 얻기도 했다.

"저와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진정한 실력과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진정한 실력에서 나오는 연주는 그 희소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음악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품위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끝으로 그는 안산출신이라는 것을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낯선 이국땅에서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며 한발 한발 더디지만 서두르지 않고 발전해 나아가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밝혔다.

글 **김선광**

김진환 프로필

1983년 8월 14일 출생
서울 예고 졸업, 연세대학교 수석 졸업(최우등상 수상), 메네스 음대 석사(Merit Scholarship Award, Peter M. Gross Award 수상) 졸업, 보스턴 대학 박사 과정 수학

현) 뉴욕클래식심포니오케스트라 대표 및 지휘자,
세종 국제 음악제 해외 사업 대표,
맨하탄 첼시 SIA 갤러리 CEO,
뉴욕 아티스트 인터내셔널 콩쿠르, 이스트 코스트 국제 콩쿠르 심사 위원

안산에서 만나는,
예술과 인간을 사랑한 위대한 시민

귄터 그라스

노벨문학상 수상 『양철북』의 저자 〈귄터 그라스〉의 삶과 예술을 돌아볼 수 있는 전시가 오는 4월 8일, 안산 단원미술관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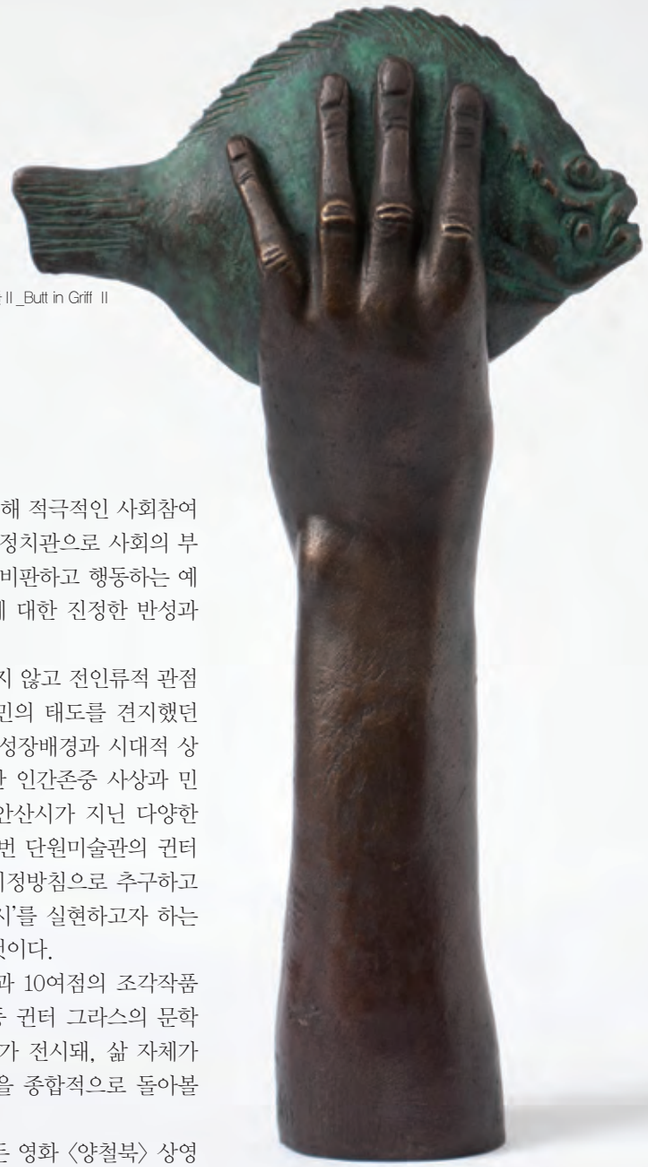
귄터 그라스의 정원과 스튜디오_2008_photo by Felix park

우리에게 영화 〈양철북〉의 원작 소설가로 잘 알려진 귄터 그라스(Günter Grass, 1927-2015)는 '현대 독일의 역사' 그 자체로 평가받을 만큼 독일을 대표하는 대문호이자 위대한 시민이었다. 그러나 그가 미술을 전공하고 스스로를 '조각가'라고 소개할 만큼 작가 이전에 화가 겸 조각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드물다.

실제로 그는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다가 영감이 떠오르면 곧바로 달려가 선 채로 글을 썼다고 전해진다. 그는 또한 탱고와 재즈에 능했고 트럼펫을 즐겨 불었으며, 요리와 사진까지 좋아했던

1 3
2

1. 다섯 명의 오스카 Ⅲ_Funfmal Oskar Ⅲ (44x61.5cm_2009)
2. 텔크테에서의 만남 Ⅱ_Das Treffen in Telgte Ⅱ (50x65cm_19791980)
3. 울브스할레 스코브 Ⅲ_Ulvshale Skov Ⅲ (63x48cm_1990.08)



넙치들 II _Butt in Griff II

한마디로 삶 자체가 예술이었다.
그는 예술가이면서 독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동을 마다하지 않았다. 진보적인 역사·정치관으로 사회의 부조리와 정권의 부패 등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행동하는 예술가였으며, 나치시대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과거 청산에도 앞장섰다.
그가 독일작가이면서도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고 전인류적 관점에서 시대적 현안들을 돌아보는 세계시민의 태도를 견지했던 것은 독일, 폴란드, 슬라브가 얽힌 그의 성장배경과 시대적 상황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존중 사상과 민주주의 정신은 여러 민족이 모여 사는 안산시가 지닌 다양한 문화적 환경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 이번 단원미술관의 귄터 그라스 전시는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시정방침으로 추구하고 있는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공정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안산시의 비전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전시는 그라스의 판화작품 80여점과 10여점의 조각작품 외에도 자필 시원고와 '양철북' 포스터 등 귄터 그라스의 문학과 미술이 접목된 다양한 아카이브 자료가 전시돼, 삶 자체가 예술이었던 귄터 그라스의 생애와 작품을 종합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그라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든 영화 〈양철북〉 상영

1 2 3
4 5

1. 부싯돌_Feuersteine (60x46cm)
2. 울프스할레_Ulfshale (60x46cm)
3. 귄터 그라스의 작업실_2008_photo by Felix park
4. 쥐, 새, 해바라기_Ratte, Vogel und Sonnenblume (65x50cm_1982)
5. 빠른스텝_Quickstep

(전시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귄터 그라스 다큐멘터리 상영, 전시 연계 인문학 강연 등을 통해 세상을 떠난지 1주기를 맞이한 그라스의 정신과 예술세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더불어 양철북 만들기 체험, 양철북 스탬프 체험, 노벨문학상 코너 등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귄터 그라스와 그의 예술에 대해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TIP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양철북'의 귄터 그라스 특별전

전시기간 : 2016. 4. 8.(금) ~ 2016. 5. 8.(일)
전시장소 : 단원미술관 1관
관 람 료 : 일반 4,000원(안산시민 2,000원)
초·중·고/미취학아동/군인 1,000원
* 단체(20인 이상) 50% 할인 (중복할인 불가)
주최·주관 : 안산시, (재)안산문화재단
문 의 : 단원미술관 031-481-0504

문화예술 전시정보

유리섬

기억, 그 형상(形象)을 입다 / 3. 8.(화) ~ 6. 12.(일)

유리라는 특정매체를 통한 조형예술 분야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의 다양한 영역과 가능성을 확장시키고 보급.

▶ 문의 : 032. 885. 6262 유리섬 內 맥아트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영상과 물질 : 1970년대 일본의 판화 / 2. 1.(월) ~ 4. 3.(일)

일본국제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와의 공동 주최로 우키요에 이후의 일본 현대판화 소개

2016 경기아트프로젝트 〈경기잡가〉 / 2. 19.(금) ~ 4. 3.(일)

독자적 작품 세계를 일군 경기도 출신 청년 세대 작가의 작품 전시를 통해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잠재력과 창의성 구현

꿈틀 〈컬러풀(Color Pool)〉 / 2015. 9. 17.(목) ~ 2016. 8. 28.(일)

프로젝트 갤러리 〈퀀텀점프: 편대식 개인전〉 / 2016. 2. 18.(목) ~ 2016. 3. 13.(일)

한불상호교류의 해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단색화 특별전 〈KM 9346: 한국–모비앙 9,346km / 2016. 3. 6.(일) ~ 2016. 6. 5.(일)

KM9346, La Création artistique coréenne s'invite en Morbihan
(장소 : 프랑스 케르게넥 Domaine de Kerguéhennec)

▶ 문의 : 031. 481. 7031

정문규미술관

36人의 "뻔 FUN" 한 조각展 / 3. 16.(수) ~ 5. 15.(일) 오프닝 3. 18(금) pm 4:00

참여작가(36명)

고재춘. 권석만. 김경호. 김근배. 김동우. 김문규. 김민정. 김창곤. 김혜진. 나한균. 박수용. 민경욱. 민성호. 박대규. 박민정. 박선영. 박신애. 백진기. 박헌열. 염시권. 송현호. 심인자. 안시헌. 양세훈. 이본규. 이용철. 이진희. 전병관. 정대교. 정해덕. 조병섭. 지경수. 차현주. 한기늠. 한선현. 한진섭.

▶ 문의 : 032. 881. 2753

문화예술 전시정보

안산문화재단 단원미술관

안산문화재단이 안산시승격 30주년을 기념해 단원미술관 소장품展 〈봄의 소리〉를 개최한다.
지난 2월 정식 미술관(1종) 등록을 완료한 단원미술관은 이번 소장품전에서 지난해 수집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서양화와 한국화, 조각 등 2000년대 이후 작가들의 작품 70여점을 전시한다.
전시는 3월 4일부터 25일까지 무료관람으로 진행된다. 새 봄, 단원미술관에서 〈봄의 소리〉가 들려주는 따사로움과 여유로움을 만끽해 보자.

안산시 승격 30주년 기념 단원미술관 소장품전 '봄의 소리' / 2016. 3. 4.(금) ~ 2016. 3. 25.(금)
전시장소 : 단원미술관 1관(관람 무료) / 전시내용 : 단원미술관 소장품 70여점 / 주최·주관 : (재)안산문화재단·단원미술관

강경구, 무제, 56x76cm, 2011

Thanks to Sponsorship

문화나누미 '예술타리'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현재

총 누적금액 *386,297,43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달빛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쉐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안산대학교,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대한민국상이군경회지성용역사업소, 하라컴즈, 포스코,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음악동아리 '딴따라',
(주)크레디아인터내셔널, 지구촌문화협회 김윤호, 롯데카드 주식회사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이상철, 이시영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엔씨커뮤니티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종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다운, 주식회사 애드윙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놀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벅스캠프, 젬마트리, 천사부메랑, 김충서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최민석, 거룡전력(주) 홍희성, 이니티움, 남승완, 정화영

햇빛회원
안산도시개발(주),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쁨회원
라이프스포츠